

노숙의 의미 : roofless냐, rootless냐?1)

목 표

- (1) '집'의 의미에 대한 최근의 관점에서 본 노숙의 의미를 분석함
- (2) 사회적 문제로서 노숙에 관한 최근의 관점을 비판함
- (3) 집과 노숙에 관한 다양한 의미의 범위를 확인하고 탐색함
- (4) 집과 노숙의 맥락에 관한 증거를 재평가함. 그리고 재평가된 증거의 관점에서 홈리스의 의미를 재조명
- (5) 공식적 정의, 법과 정부 규정에서 나타난 노숙의 정치적 의미를 탐색함

1) Peter Somerville(1992), Homelessness and the Meaning of Home: Rooflessness or Rootless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6(4): 529-539

1. 집(home)의 의미

최근에, 연구주제로서 집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그러나 '집(home)'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석할 것인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Gurney(1990)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정서적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사용함. 이는 Saunders의 거시사회학적 접근('분류학적 일반화'(taxonomic generalization)의 관점에서 집을 이해할 수 없음)과는 다름.

또한 Gurney의 주장처럼 만일 집이 단지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집이 있는가 또는 없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Gurney의 주장은 심지어 노숙인이라도 집은 있는 것이 된다. 많은 거리의 사람들은 좀더 경험적인 형태로부터 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 그렇지만 그들이 실질적인 집(real home)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Watson과 Austerberry(1986)는 특히 노숙 여성이 집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거 조건을 구분한다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Gurney의 주장은 집의 의미가 '경험적 아젠다'에 의해 적절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 즉, 집은 감정과 경험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인지와 지적인 구조이기도 하다. 하지만, 집을 이데올로기적 개념에 대한 그의 주장은 옳은 것인데, 이러한 구분은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형태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Watson과 Austerberry(1986)의 연구는 집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밝힘. 쾌적한 물질적 조건과 기준, 정서적 및 신체적 wellbeing, 좋은 사회적 관계, 통제와 사생활, 단순한 생활과 수면의 공간. 반대로, 노숙 상태는 취약한 물질적 조건, 정서적, 신체적 wellbeing의 부재, 사회적 관계, 통제와 사생활의 부재,

단순한 rooflessness 상태를 말함. 모순이 발생.

집의 의미에 대한 관점에서, '노숙인'에 대한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 정의는 1977년 주택법에서 나타난 것처럼 최소한의 의미. 가장 잘 알려진 '일반적인' 정의는 '자신의 안전하고 최소한의 적절한 주거 공간에 대한 권리나 접근이 없는 상태'(Barnley, 1988)이다. 이것은 통제와 사생활 그리고 취약한 물질적 조건의 두가지 면만을 포함함.

2. 노숙에 대한 현재의 설명

실제로, 노숙을 설명하려는 대부분의 시도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개념화된 대로 인식하지 못함. 그것을 'fact'로 나타내고, 공식적 또는 일반의미의 정의를 수용함. rooflessness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정의는 정체적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것은 주택의 수요의 비효과성 또는 공급의 결핍의 관점에서 설명됨. 예를 들어, 신보수주의 입장에서 노숙은 가정 생활의 해체 또는 가장 개인의 실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 신자유주의에서는 주택 시장의 왜곡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 특히 임대 주택에서 자유 시장의 부재. 반면에, 사회민주주의 입장은 시장과 정부가 가난한 가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패의 결과라고 봄. 이러한 설명들은 전부 부적절. 신보수주의 설명은 단지 희생자만 비난. 신자유주의 설명은 소유자 주택에서의 자유 시장의 지배를 간과함(이는 결국 임대 주택 공급의 잔여화를 만들어 냄). 사회민주주의 입장에서 단지 피상적.

다른 수준에서도 부적절. 노숙의 개념이 너무 좁음. 신보수주의는 개인에 대한 경제적, 주택 체계가 놓이는 한계를 간과함. 신자유주의는 노숙에 관계되고 자유롭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빈곤에 대해 그럴싸하게 꾸민다. 사회민주주의는 무력감과 빈곤을 재생산하는 정부의 관료화의 역할을 간과함.

노숙에 대한 설명은 노숙의 전범위의 정의를 고려하고 빈곤과 주택 체계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함. 예를 들어, Weberian이나 맑시즘 또는 패미니즘이나 맑스-페미니즘 관점에서 설명하듯이 노숙은 'underclass' 또는 'sub-proletariat'를 구성함. 'underclass' 이론은 미국의 '빈곤 문화'에 의해 영향. roofless로서, 주택 시장에서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지만, 노동 시장에서는, 모두 다른 입장에 있으며, 따라서 노숙인들은 동일한 계급이 아니다.

맑시스트의 'underclass' 개념은 '모든 계급에서의 박탈된 찌꺼기'를 의미하는 'lumpenproletariat'의 맑스와 엥겔스의 개념에서 나왔다. 맑스와 엥겔스는 우선적으로 범죄적 우애를 의미한 것이며, 빈곤이나 무산자, 무력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확대 해석을 통하여 생존의 수단이 노동, 이득, 이자 또는 임대세가 아닌 사람들을 포함하게 된다. 오늘날, 이러한 underclass는 '범죄적 계급'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주로 정부 급여와 제공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모든 노숙인들은 정부의 급여와 제공에 의존하며,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underclass에 포함된다.

Weberian과 맑시스트들은 빈곤, 무산, 무력의 맥락에서 또한 자본주의적 노동과 주택 시장의 작동의 맥락에서 노숙을 설명. 하지만, 이론적 분석은 맥락에서만 다루려고 하였고 노숙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함. 좀더 만족스러운 이론은 주택 시장 과정과 정부 정책과 이론의 통합적 부분으로서 노숙을 다루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3. 집과 노숙에 대한 분석

【표1a】 집의 의미

주요 상징어	일반 개념	안전의 의미	자신과 관련	타인과 관련
"쉼터"	모성	신체적	보호	Roofing
"가정" (Hearth)	따뜻함	생리학적	이완	Homeliness
"마음"	사랑	정서적	행복	안정성
"사생활"	통제	영토적	소유	배제
"뿌리"	정체성 근원	존재론적	센스	Reference
"주거"(Abode)	장소	공간적	쉽	생활/수면 공간
"파라다이스"	이상	영적	축복	Non-existence

【표1b】 노숙의 의미

주요 상징어	일반 개념	안전의 의미	자신과 관련	타인과 관련
쉼터부재	모성 박탈	신체적	노출	Rooflessness
가정 부재	차기움	생리학적	스트레스	소외
마음 부재	무관심	정서적	곤궁	불안정성
사생활 부재	무력	영토적	감시	취약
뿌리 부재	아노미	존재론적	Senselessness	상실
주거 부재	장소의 부재	공간적	Restless	(불가능)
"Purgatory"	이상	영적	고통	Non-existence

▶ 노숙의 의미는 집에 대한 이상적인 정반대 의미는 아님. 예를 들어, 가정과 마음으로서의 집은 강한 이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개념은 노숙의 물질적 기반이 사라진다 해도 보유될 수 있는 것이다. 노숙인들에게, 현실은 다르지만, 이상은 동일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은 노숙의 최소한의 정의가 사회적 의미가 없는 거주 부재가 아니라, 쉼터의 부재 또는 rooflessness로 설명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이것은 냉정함과 무관심의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실질적인 스트레스와 궁핍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과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노숙인 자신들도 극도의 스트레스와 궁핍의 조건에서도 집을 가정과 마음으로 인식하려고 한다.

4. 집과 노숙의 당면한 맥락

집은 상징적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지위는 설계 특징(모성), 이웃과 방문객에 대한 행동 양식(가정), 소유의 자부심(마음), 영토적 통제의 정도(사생활), 존경의 정도와 적소(niche)에 대한 감각(뿌리), 내부 생활의 질(거주)로 표현됨. 반면에, 노숙은 사회적 지위의 부재, 불안정성, 타인에 대한 문제, 거부, disreputable, nicheless의 특징을 나타냄.

집의 의미는 몇몇 관점에서 부동산의 보유(tenure)와는 별개의 것,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관계가 있음. 쉼터, 뿌리, 거주로서, 집의 의미는 부동산 보유 불변 사항이지만, 가정, 마음, 사생활은 부동산 보유 변수 사항이다. 소유주는 집에 대하여 따뜻함과 애정을 느끼지만, 세입자는 그렇지 못함. 더구나 소유주는 집에 대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생활의 보장에서도 차이가 생김.

내부 관계에 대한 증거는 집과 노숙의 설명에서 매우 중요. 노동의 내부 분화, 내부 자원의 통제와 관리, 가구 멤버의 법적 관계, 부모-자녀 간의 애정적·경제

적 관계,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가구 형성과 해체 패턴 등. 노숙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궁핍을 공통으로 의미하지만, 남성의 경우 궁핍은 정서적 박탈의 형태일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가정 내의 역할의 상실, 그들에게 더 심각할 수 있는 실직의 종류를 의미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예로, 자원 배분에 대하여 남성이 자원을 통제하고 여성은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문헌에서 나타나고 집의 의미에서 남성과 여성의 영토적 소유에 대한 의미가 차이남. 남성은 법적 소유와 재산을 강조하고 여성은 배타적 소유의 비공식적 사실, 사용자의 권리와 일상에서의 함의를 강조. 노숙은 남성, 여성 모두 사생활의 부재와 무소유를 의미하지만, 남성의 경우 재산의 부재의 형태로, 여성은 일상의 해체를 의미하게 됨.

또한 '가정 폭력'은 부적절한 표현. 항상 남성이 가해자이며, 여성이 피해자이므로 가정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발생하는 문제. 이것은 '폭력 남편'의 문제임. 때맞은 아내가 집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은 모순이 아님. 이것이 때맞은 아내가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쉽게 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의미가 됨.

5. 집과 노숙의 확장 맥락: 사회적 및 정치적 관계

사회적 세계는 그 자체 배열되어 있으며(ordered/ 단순한 리스트가 아님), 따라서 집과 노숙이 이러한 질서에 어떻게 맞는지 나타낼 필요가 있음. 질서는 흔히 인과관계로 인식되지만, 인과성은 거의 분석되기 어려움. 이 글에서는 인과적 질서가 아니라 논리적 질서에 초점. 사회적 관계의 형태간의 논리적 관계. 따라서 노숙의 원인을 따지는 것은 오해. 어떤 사건이나 속성이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필요한 것은 집과 노숙을 경제적 및 정체적 체계의 맥락에 두려는 것. 예를 들어, 퇴거에 파워를 주고, 해체되지 않은 양부모 가정에 우선권을 주는 것.

이 글에서는 rooflessness의 최소한의 정의 이상의 노숙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주장. 하지만, 공식적 정부의 인식에서는 협소한고 물질적 의미만을 강조. 영국의 경우, 1977년 주택법에서 논의를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효과에 대한 관심으로 논리적으로 확대하게 됨.

이 법은 정부 권력의 집중화를 나타냄. '우선적 욕구'가 있는 노숙인을 위한 주택 공급은 지방 정부의 의무로 부과하고 주택 배분 정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함. 그 결과, 노숙에 대한 지방 정책이 매우 영향력있지만, 노숙의 사회적 문제는 지방 수준에서 전국 수준으로 이동하기 시작.

또한 이 법은 council housing과 주택 정책의 잔여화(residualization)에 기여. 지방 정부는 주택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를 위한 공급의 책임이 있고 주요 주택 부족과 주택 시장 규제에 대한 이전의 관심을 돌리기 시작.

이 법은 사회서비스부에서 지방의 주택부로 전문적 권력의 변화를 포함. 1948년 국민부조법하에서 노숙에 대한 책임은 '복지' 기능이었으며 60년대 빈곤과 무력감의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정치적 아젠다로 떠올랐지만, 주택 전문 전문가로의 정책이 전환하면서, 노숙을 정치적 논쟁에서 배제하기 시작함.

집중화는 지방 노동 계급의 그 정책에 대한 반대에 대한 전국 지배 계급의 대응이었으며, 잔여화는 소유주의 우선권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계급 구조에서의 성차별주의 효과를 가짐. 정치적 전환은 정부 집중화 성공을 위한 지배 계급의 비민주화 전략을 포함.

1977년 법에 대한 모든 당의 지지는 이데올로기적 함의에서 한 부분 설명할 수 있다. 노동당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제공을 지지. 토리당은 핵가족이 우성이며, '자격 있는' 사람들만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정책을 지지(단신 노숙인과 '의도적인 노숙인'들은 배제됨).

알콜중독 노숙인에 대한 치료와 연구¹⁾

도입

최근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에 대한 조사에서 그들의 알코올, 약물 문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저자들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 이 시점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주장한다. 그들의 數적 증가,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적절한 대처의 부재가 초래하는 비용에 대한 압력으로 노숙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과 상당한 비용로 차지하고 있는 중독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탐색을 위한 좋은 시점이다. 최근 미국의 수에 대한 추정 은 250,00에서 3백만(Hopper & Hamberg, 1984). 대략 20-45%는 알코올문제(Lubran, 1987). 남성중 알코올중독자는 50%, 여성은 15%에 가깝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 집단보다 3-6배정도 심각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노숙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

1) Thomas E. Shipley Jr., Irving W. Shandler and Michael L. Penn(1989), Treatment and research with homeless alcoholics, *Contemporary Drug Problems*, Fall, pp. 505-526.

1. 노숙인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치료에 대한 장벽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 : 적절한 공공 또는 민간 자원의 부재, 관련 문제와 이슈의 복잡성, 서비스 해결에 대한 일반적 비관주의. 이러한 이유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비관주의에 대하여 좀더 생각해 보자. Breakey(1987)는 치료 제공의 문제를 대상의 특성으로 기술하였다. 노숙인 중독자들은 사회적 단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쉽게 그리고 깊게 관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그들은 치료 기관을 불신한다. 또한 이동이 많고 욕구가 다양하고, 중독과 연결되어 다른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그들은 이상적인 환자가 아니며,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종래의 건강관련 자원으로 부터 거부되고 낙인된다. 예를 들어, Halikas et al.(1984)은 만든 평가기준은 오히려 프로그램에서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구별하여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Breakey(1987)는 노숙인 중독자들은 그들의 욕구와 특성 때문에 특별한 시설과 클리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서비스는 막대한 비용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대중성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

▶또한 미국 도시에서 저소득 주가의 부족과 함께 서비스와 기술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많은 알코올중독 및 약물 중독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치료와 재활 과정을 좀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Stark(1987)가 주장하기를, "공공 장소의 주정뱅이들의 알코올 문제는 노숙인의 원인에 대한 파악 없이는 치유될 수 없다. 한 개인이 안정된 경제적 지지 체계(직업, 기술, 공공서비스)가 없이 단주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한 개인은 살 공간이 없이는 단주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다른 장애(신체적 또는 정신적)에 대한 의료적 치료 없이 단주할 수 없다."

▶비관주의에 대한 다른 이유로, 많은 노숙인들이 알코올 및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서비스 공급자와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중독자들은 변화에 대한 동기가 없다고 믿는다. 물론, 약물 중독자가 변화를 원하지 않거나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다면, 어떠한 치료 프로그램도, 그것이 완벽하거나 훌륭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치료 프로그램은 변화가 가능하고 희망적이라는 기대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생길도록 추구해야 한다. 변화에 대한 희망은 그 사람이 치료 과정을 시작하자마자 자연히 일어난다. 그러한 희망은 부분적으로 opponent-processes (Shipley, 1982, 1987; 이후에 논의)의 효과로부터 생기는 것 같다.

2. 노숙인의 알코올중독 치료

▶ 지난 10년간 정신적 장애와 알코올중독의 치료의 평가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 정신요법의 평가에 대한 검토에서, 몇몇 정신치료는 정신치료가 전혀 없는 것보다 더 좋지만 어떤 유일한 형태가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찬가지로, 알코올중독의 치료에 대한 검토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는 치료가 없는 것보다 더 좋지만, 유일한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치료 결과에서의 개인적 차이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고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 이러한 검토는 성공적 알코올중독 노숙인의 재활의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비관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Baekeland(1977)는 쓰기를 : 치료의 지속과 결과에서의 치료 요인보다는 환자에 의한 우세한 역할에 대해 반복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입원 연구에서 좋은 예후의 환자(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안정성)는 32.4%-68%로 다양한 향상율을 보이는 반면에, 나쁜 예후의 환자는(대부분 skid row 알코올중독자) 0-18%의 비율을 보인다. 외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좋은 예후의 환자(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좋은 동기화,

높은 사회적 안정성)가 높은 성공률을, 가장 나쁜 결과는 대부분 skid row 환자들이었다.

▶ 좀더 최근에, Moos and Finney(1983)의 결론에서, 선천적 요인(예, 사회인구학적, 발생학적, 이전의 음주 특성)들은 성공에 대한 변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설명한다(20% 이하). 하지만, 노숙인 알코올중독자의 치료에 일반화하기에는 분명하지 않다. 더구나, 그들은 알코올중독자의 궁극적 재활에서의 치료 외의 요인과 생활-맥락의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 동일한 아티클에서, 그들은 이 영역에서의 평가 조사는 알코올중독에 대한 기본적 조사와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현실적 관심의 결함이라는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개인적 및 사회적 해체에 연관되어 있는 장기 음주에 대한 극도의 예라고 할 수 있는 노숙인 알코올중독자의 문제에 적용될 때 이러한 주장은 적절하다.

3. 해독 과정과 희망의 개발

▶ 알코올중독자의 해독은 "중요한" 또는 "실질적인" 알코올치료가 시작하기 전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짐.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초기의 해독 기간 후에 퇴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몇 주 또는 몇 개월 후에 해독을 위하여 다시 나타난다-새로운 회전문으로 들어옴. 해독 과정동안 개발하는 중요한 경험은 재활의 첫번째 단계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해독과정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증상의 순서와 표현에 집중되어 있으며, 위험한 경련(convulsions)에 특별한 강조를 둠. 하지만, 상당한 관심은 언어장애의 정동 조건에 대하여 쏟아 왔으며, 특별히 장기 치료에 대한 함의를 가져오는 주요 정서 장애와 연관됨. 실제로, 우울의 사정과 병리학(좋은 감정은 생략되거나 부정같은 병리학의 관점에서 해석됨)에 강조.

▶다른 한편, Tiebout의 초기연구에서, 좋은 감정의 개발을 인정, “항복의 행동(the act of surrender)”에 기여함. “긍정적 단계가 오는 것을 알지만,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항복은 전투의 종결을 의미하고 내적 평화와 고요함에서 오는 것 같다. 그러한 관점이 분명해 보이지만,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전체 감정이 바뀌게 되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그는 항복의 행동이 치료력있는 힘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코올중독자는 삶에 대해 적대적이라기 보다는 수용적이다. 그는 음주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사로잡힘 (possession), 내적 평안과 보장의 원천이 되는 연관성(relatedness)과 전체성(at-oneness)을 느낀다.”

▶최근에, 이러한 감정의 긍정적 전환은 심리적 반동(Psychological rebound)(Barry, 1982)과 opponent-process theory(ShIPLEY, 1982, 1987)의 관점에서 개념화되고 있다. 또한 Shipley(1982, 1987, 1988)는 이러한 현상이 opponent-process theory와 귀인이론의 관점으로 개념화될 때 치료에 대한 자극적인 함의를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귀인이론과 연관된 opponent-process theory는 그러한 현상을 placebo effects, transference cures, euphoria 수반 카타르시스로서 설명을 하도록 도왔다. 최소한 이러한 감정적 반동은 클라이언트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치료적 작업의 전망이 좀 더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서적 경험을 의미한다.

▶최근에 Sherrod(1987)는 긴급 금단(acute withdrawal)동안에 정서적 전환의 타이밍, 범위, 질을 연구함.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27명 남성(11명 노숙인)과 2명의 여성의 만성 알코올중독자 집단의 클라이언트는 acute withdrawal동안 일상에 대한 mood-adjective rating scales를 실시. 4번째 날에, 29명 중 14명은 행복/슬픔 척도(7점)에 스스로 높다고 평가하였고 29명중 22명은 6또는 7점으로 평가하였다. 즉, 대부분 클라이언트는 적어도 한 번은 극도로 높은 기분을 평가하였고 전형적으로 매우 스트레스 상황으로 여겼던

이 기간동안에 더욱 그렇다. 어떠한 클라이언트도 해독 프로그램 중에 항우울제나 기분전환제를 먹은 적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고양된 감정의 기간은 AA의 사람들이 “pink cloud”라고 언급하였다. pink cloud를 아는 AA 멤버나 상담가는 그것의 궁극적 치료적 가치에 대해 이중적이다. 하지만, 회복에서 정적 가치가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시작한 치료는 사회적 및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치료에 오는 노숙인 알코올중독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희망은 좋은 출발을 위한 필수적 조건일 뿐이다.

4. 기타 치료관련 이슈들

▶단기 외래 치료가 사회적으로 안정된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장기 거주 치료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지만, Emrick (1982)와 Miller와 Hester는 장기 거주 치료가 노숙인과 사회적으로 파괴된 알코올중독자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Miller와 Hester는 요약하기를, 결과의 방향은 합리적으로 일관적이다. 좀더 심하고 사회적으로 덜 안정된 알코올중독자들은 입원(좀더 집중적인) 치료에 더 좋고, 반면에 덜 심하고 좀더 사회적으로 안정된(기혼, 취업) 알코올중독자들에게는 외래 (덜 집중적인) 치료는 입원 치료보다 좀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안정된 알코올중독자와 불안정한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집중 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은 현장이 단주와 개인적 및 사회적 안정성을 촉진하는 세팅과 기법을 개발하기 전에는 계속될 것이다.

▶최근에 Babor 외(1988)는 음주와 성공적 치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및 사회적 요인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음주로의 재발은 비알코올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알코올관련 문제의 높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다양한 범위에서 결과의 매개에서 치료 후 알코올소비의 역할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매개는 한 방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회적 관계를 만족시키는 것은 대부분 알코올중독자의 단주를 계속하도록 기여하고 그러한 관계가 부재한 것은 재발에 기여하는 것으로 예측한다.

▶ Hunt와 Azrin(1973), Azrin(1976)의 연구에서, 통제 치료 집단의 결과와 비교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만드는 치료에 대한 "지역사회 강화(community reinforcement)"에 대해 기술하였다. 원래의 프로그램은 취업과 가족 및 다른 사회적 연대의 강화에 강하게 의존하는 반면에, Azrin의 프로그램은 상담가와 이웃 조연자의 지지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배우자로부터의 격려가 수반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Disulfiram의 운영을 포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행동수정의 이론에 근거함. 또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확장하도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노숙인 알코올중독자의 재활에 대한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사회적 관계의 질과 확대의 기능이 되는 개인적 차이점에 대하여 보고. 이들 클라이언트들은 덜 집중적인 상담 집단과 Half-Way House 프로그램과 반대로 성공률이 매우 높게 나오고 실패율이 매우 낮게 나오는 결과.

▶ 프로그램에서 성공을 예측하는 사회적 관계의 다른 특성으로, 상담가와의 관계에서의 진실성, 약속시간을 지키는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상담가와의 관여, AA 모임의 참석, AA에의 commitment, 다른 조직(교회, 조합, 치료 및 사회 모임)에의 관여가 포함. 마지막으로, 단주의 유지와 거주안정성에서의 성공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

중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제공된 서비스의 범위

(1) 해독 -병원과 병원이 아닌 곳

(2) 외래나 부분적 입원 이전의 완전한 의료적 평가

(3) 외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주 시설

(4) 다양한 지지 서비스(예, 음식, 옷, General Equivalency Diploma 등)

▶ 서비스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주거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과 스텝을 통제한다는 점. 이것은 한 클라이언트가 일관된 치료 철학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임. AA/NA 모임은 모든 시설에서 열리고 의뢰는 특별한 활동에 있는 다른 기관이나 서비스(법적 원조, eyeglasses, 의료지원, 직업 재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성이 있는 곳으로 이루어진다.

▶ 프로그램에서 남성과 여성을 위한 모든 치료는 주요 시설(치료의 hub)에서 일어나지만, 주거는 많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주거 프로그램은 스텝이 잘 짜여있고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 주거 상황이 통제되고 제공되는 치료를 지원한다면 장기 집중 치료(4-6개월)는 외래 프로그램과 결합될 수 있다. 새로운 목적과 개인적 관계와 인적 지지의 개발은 안정된 환경에서 가장 잘 시작될 수 있다.

▶ Fagan과 Mauss(1986)의 연구에서, 사회로의 복귀에서 도움이 되는 노숙인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체계적 원조에 대하여 보고. 프로그램의 목적은 1차적으로 프로그램 직원과 후원자, AA 참가, 새로운 친구, 가족 재결합, 취업 기회, 공공 급여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연결망을 통하여 현실화된다고 주장. 또한 사회화의 개인적 차이가 성공적 결과에 관련된다고 주장. 일반적으로 노숙인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조사연구는 치료 과정을 통하여 재사회화를 위한 다른 전략과 치료 초기에 중요한 정서적 반응을 탐색하려는 프로그램을 지향해야 한다. 긍정적 정서 반응과 새롭고 안정된 사회적 통합의 패턴의 개발은 계속되는 단주와 관련되는 것 같다.

▶ 시작이 좋고 의미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모두 충분한 것은 아니다.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관습은 천천히 없어진다.

Marlatt와 Gordon(1985)은 합리적으로 안정된 생활 패턴이 재설정된 후에 단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많은 위험에 집중. lapse는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의 갈등의 조건하에서 일어나기 쉽다.

▶ 이러한 발생은 모든 가능성이 미리 경고되고 일찍 문제를 인식하도록 훈련 받고, 문제가 일어나면서 해결을 개발하도록 원조를 받는다면, 큰 위험으로 번지지 않게 된다. 단주에 대한 위협은 pink cloud가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다. AA 멤버와의 인터뷰에서, 특별히 위험한 시간은 단주 중 2,3개월이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pink cloud가 사라지는 때이다. 스웨덴 연구에서는 재발이 irritability의 증가와 체계적으로 관련 있다고 밝혔다.

5. 노숙인 알코올중독의 치료와 관련된 조사 유의점

▶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유의점으로 제한. 이것은 Green과 Attkison(1984)이 정의하기를,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조직된 노력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좀더 구체적으로, 설계의 평가, 노력의 수준, 비용효과성 같은 7개의 하위목표의 관점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정의. 여기서, "효과의 크기와 특성", "인과관계의 강도"를 고려.

▶ 효과의 크기와 특성에 관한 평가는 결과의 사정을 필요로 함. 노숙인 치료를 설계한 프로그램에서의 결과 사정은 poly-drug-addicted 클라이언트는 잠재적으로 매우 처벌적이다. 프로그램 평가의 용어로 평가자는 제삼자적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반된 상황하에, 승리자(절주 클라이언트의 높은 비율)를 만들어내려는 상당한 압력이 있다. 효과있는 통계에 대한 압력은 운영, 임상 스텝, 프로그램 후원자, 미디어, 조사자/평가자 스스로로부터 나올 수 있다.

▶ 프로그램 평가의 계획은 행정적 및 임상 스텝에 의해 개발될 수 있고 개발

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는 평가를 특별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에 관련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평가는 스텝의 능력에 대한 위협, 또한 조직의 재정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최근의 연구에서, 치료 서비스의 구매자가 평가로부터 원하는 것에 대한 주정부의 관점에 대하여 논의.

▶ 이러한 관점은 중요한 어려움에 대해 제기함.

(1) 단일 프로그램이 자료를 기초로 그 방향을 변화한다면, 평가는 변화가 생기자마자 시기가 늦은 것이 된다.

(2) "객관적 결과"에 상당한 강조를 하는데, 상당한 복잡성을 숨기는 어구이다. 예를 들어, 객관적 평가는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사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는 강한 가족 지지를 가진 중산층 알코올중독자뿐만 아니라 어려운 클라이언트(불안정, 낮은 사회경제적 다중 약물 중독자)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좋은 평가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재발을 다루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각각에 연관된 신뢰성 평가를 필요로 할 것인가?

▶ 이러한 위협 하에 건전한 방법론적 실천에 집착하는 대신 정적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코너를 자르는 강한 동기를 개발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바람직한 실천들을 고려함.

(1) 난선택화 또는 총화 난선택화 할당의 원칙에 충실하라.

(2) 사람들 또는 혈액 테스트 같은 독립적 원천의 개발에 의한 절주(또는 음주 패턴)의 주의 깊은 평가

(3) 전 프로그램 중 각 단계에서의 중도탈락(drop-out)에 대한 평가

(4) 모든 참가자에 의하여 치료의 시행의 평가를 포함한 치료 절차에 대한 주의 깊은 정의

▶ 미래의 후원을 위한 결과 평가에 대한 위협도 중요.

▶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치료에 대한 서비스와 지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

될 수 있는 철저하고 편향되지 않은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 공공정책에 대한 도전은 서비스의 구매자가 적절한 피드백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전문가와 과학적 지역사회로 하여금 여러 형태의 고통받는 중독자를 위한 좀더 신뢰성있는 치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평가 절차와 목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원 정책이 좋은 평가 조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도록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과관계의 강도는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의 개발은 인과관계의 믿을 수 있는 제시에 의존해야 한다. 탐색을 위한 3가지 가능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치료 초기에 강한 긍정적 감정의 개발, 새롭고 보상이 되는 인간 관계의 개발, 일탈(lapse)로부터의 회복.

홍콩의 거리노숙¹⁾

1. Introduction : the homeless street sleepers

▶노숙인의 정의가 다양하고 그 방법도 다양하지만, 거리노숙인(street sleepers)은 그 원인과 원조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다르더라도, 노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숙인은 복잡한 문제, 그 원인과 거시적, 미시적 수준으로 논의할 수 있다. 거시적 수준에서, 구조적 요인(저소득 주택, 빠른 인구 증가율, 취업 기회의 감소, 지리적 위치와 사회보장 정책, 지역사회보호 등).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적 요인(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알코올과 약물 남용, 가정폭력 등). 많은 학자들은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성화의 문화(culture of chronicity)'는 노숙인들 사이에서 발견된다. 낮은 자존감, 손상된 사회적 기능, 우울 증세, 외로움 등. 가족과 사회 지지망 체계로부터의 단절, 폭력적 관계, 빈곤 생활, 열악한 신체적 건강과 상처나 공격에의 위험 노출.

▶거리노숙인은 노숙인 중에서 가장 보이는 부분. 거리에서 밤을 보냄. 거리노숙은 노숙인의 가장 극도의 형태다.

1) Joseph Kwok and Raymond Chan, Street sleeping in Hong Kong, *International Social Work*, 41(4) pp. 471-483.

2. Street sleeping in Hong Kong

▶ 홍콩의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1994/95년에 빈곤선 아래의 가족은 250,000 가족으로 추정됨(약 11%). 정부 제공의 주택은 급격히 확대. 인구의 47.89%가 공공주택에서 생활. 하지만, 주택 부족은 심각, 해마다 임대료가 높고 비싸짐.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은 6년반을 기다려야 한다.

▶ 홍콩 정부는 거리노숙인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부는 거리노숙인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거리를 떠나도록 설득하는 특별 task force를 고용함. 또한 보건, 쉼터, 재정적 원조도 제공. 한편, 지방 정부와 비정부 조직들은 여러 조사연구 진행. 서구 사회의 연구와 다르지 않는 관련 요인들을 밝힘.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거리노숙인의 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시각에 영향을 주지 못함. 고위공무원의 시각으로, 거리노숙의 주요 이유는 노숙인을 위한 주거의 다른 형태에 대한 정부의 제의를 강하게 반발하고 이러한 생활 스타일에 개인적으로 고착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일관된 정부의 정책이 없음. 심지어 장기 주거 정책을 개발하려는 최근의 정부 자문 보고서에도 거리노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개입 연구는 다양한 정부 조직과 비정부 조직에 의해 장기적 전략을 무시하고 협력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조사 방법론

▶ 이 연구는 홍콩의 가장 사업이 번성한 지역에 기반. 목적은 거리노숙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거리노숙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그것을 다루기 위한 필요한 정책 입안에 대한 기획 과정을 촉진하는 것.

▶ Wanchai 지역. 전부 91명 거리노숙인 확인. 77명 인터뷰, 84.6%.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인터뷰. 1995년 11월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개방형과 폐쇄형 질문이 있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자료 수집. 2명의 면접인에 의해 실시.

4.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

(1) 인구학적, 가족 및 사회망 특성

▶ 남성, 56세, 초등학교학력. 독신, 이혼, 별거, 사별 형태. 기혼자일 경우, 자녀가 없고, 함께 사는 배우자나 이전의 배우자는 죽었거나 홍콩에 살지 않음. 대부분 부모는 사망. 적은 수는 형제가 생존해 있으나 대부분 중국에 있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음. 따라서 가족 유대감은 약하거나 상실. 하지만, 60%는 친구가 있음. 전적으로 외로운 것은 아님. → 친구와의 관계가 사회망 특성의 주요 영역.

(2) 취업

▶ 75%가 실직. 대부분 장기 실직, 11%가 10년 이상. 60%가 2-10년. 대부분 매우 빈약한 홍콩의 사회보장 급여에 의존함. 더구나 대부분 구직을 포기. 30%만이 현재 활발히 구직 활동중.

▶ 취업자 중에서 25%의 재정적 상황은 매우 열악. 비숙련이 대부분. 월 미 250달러 소득(홍콩에서 적절한 음식이나 쉼터에 대한 지불에 못 미침).

(3) 약물남용, 알코올리즘, 범죄, 건강

▶ 아무도 알코올중독으로 보고하지 않음. 알코올중독은 주요 문제가 아님. 하지만, 약물 중독은 44%가 인터뷰 중 또는 과거에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 약물을 포기한 사람 중 절반은 1년 이상 끊은 상태. 45%는 전과 기록 있음. 2/3 정도는 1년 이하의 교도소 복역.

▶ 건강에 관해서는 다소 혼란된 결과. 심각한 건강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관찰자 소견으로는 다양한 건강 문제의 증세가 발견. 개인 위생 문제도 심각.

(4) 거리노숙의 역사와 이유

▶ 29.8%는 1년 이하의 역사, 42.8%는 2년 이하의 역사를 가짐. 37.6%는 5년 이상 노숙.

▶ 민간 주택 거주가 거리 노숙을 조장. 대다수는 특히 오래된 민간 주거에 있었음. 54.7%는 높은 집세가 이유가 됨. 18.7%는 주거지의 해체. 높은 집세는 노숙인의 주요 이유이기도 하고 거리 노숙을 지속하게 되는 이유도 됨.

(5) 사회서비스의 활용

▶ 모든 응답자는 하나 이상의 사회서비스 기관에 접촉하였거나 접촉하고 있음. 64.9%는 정부의 사회복지부로부터 현금 원조를 포함한 도움을 받았다. 10.4%는 비정부 쉼터로부터, 11.7%는 약물 재활 센터로부터. 더구나 대부분 많은 사회서비스 기관으로부터의 원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 모두 의료 서비스를 원하고 90.9%가 재정적 원조, 87.1%는 의복, 71.4%는 음식, 87.5%는 약물 재활, 87.5%는 상담 서비스.

▶ 하지만, 주거와 고용 서비스는 정부로부터의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음. 두 영역은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를 선호함. 주요 이유는 '규칙이 싫어서'와 '위치'이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원하지 않음'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을 원하지 않음' 같이 독립적인 것을 원함.

5. 자발적 아니면 비자발적 거리노숙?

▶ 대부분 비자발적 거리노숙인. 1.3%만이 거리노숙을 시작할 때 선택. 6.7%만이 현재 거리 노숙을 선호. 80.5%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리노숙을 그만두고 싶다고 대답. → 거리노숙은 개인주의 생활 스타일에 너무 고착되었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지지 받지 못함.

▶ 민간 주거는 부족하고 집세는 매우 높다. 거리노숙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불가능. 17.3%는 민간 임대 기관으로부터 거부당함.

▶ 만성화 문화 이론은 이 집단에게 적용되기 어려움. 자원이 거의 없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기관으로부터의 원조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부분 스스로 독립적이 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고 있음.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다.

▶ 거리노숙을 조장하는 구조적 한계가 미래에도 계속되거나 심각해질 것이다. 홍콩은 저숙련 산업 경제에서 고숙련 재정 및 서비스 경제로 전환. 취업을 위해서 고학력, 자격, 기술이 더 중요해짐. 저기술과 저소득 생활자들은 민간 주택을 취득하기 어려움. 정부 및 NGO의 비영리 주택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짐.

6. A focused intervention policy

▶거리노숙인은 단일한 집단이 아님. 3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다른 정책 대안이 필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적절한 주거 마련이 거리노숙인을 위한 구체적 정책의 전제조건이다.

(1) 1차적 예방: 거리노숙인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지지 서비스

▶예방의 정의와 형태는 다양. 취약한 집단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 이중적 초점. 첫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자원과 능력을 고취. 둘째, 개인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을 거리노숙하는 것으로부터 방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능력과 자원을 고취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취업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 정부 고용 서비스(노동부, 취업 훈련기관, 고용인 재훈련 위원회)는 중요한 역할 담당. 가족이 없고 50세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 장기간 실직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 안정된 직업을 찾도록 노력. 훈련 및 재훈련 기관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도록 도움을 제공.

▶출소자들도 취약한 집단. 정부의 교정 서비스부와 관련 NGO가 새로 출소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물질적 원조를 제공.

▶민간 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보편적 사회보장 원조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취약 집단. 특히 주택이 철거되거나 재개발될 때 더욱 그러함. 공공 주택으로 재주거 제공을 실시해야 함. 이 경우 사회복지부와 토지개발조직에서 특별한 역할.

▶모든 형태의 저비용 임대 주거가 마련되어야 함.

(2) 2차적 예방: 신입 거리노숙인을 위한 초기 개입에 대한 필요성

▶단기 거리노숙인들이 대안적 주거를 찾고 장기 노숙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 42.8%가 2년 이하 노숙인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이 집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관련 전문가가 이들이 모이는 장소에 빈번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중요. 공원 관리인과 경찰 스텝도 도움을 줄 수 있음.

▶일단 발견하면, 거주할 공간(임시 숙소)이 필요. 덜 통제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친근하고 보호적인 소비자에게 대하듯이 쉼터가 제공되어야 함. 쉼터화된 워크샵의 기능과 낮 활동 센터를 포함. 좀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쉼터 스텝은 구직, 훈련,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을 도울 수 있음.

(3) 만성 거리 노숙인을 원조하는 방법

▶장기 노숙인들은 원조기관의 제공을 거부하고 불손하거나 이상하게 행동하는 경향. out-reach를 통한 다학문적인 팀이 필요. 이 집단과의 working relationship을 구축, 개방된 공간에서 상담 서비스 제공, 상호원조 집단 운영.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꾸려가도록 돕는 것이 목적.

▶일상의 자조 활동을 위한 편리한 장소와 영구적인 주거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소유물을 보관할 수 장소를 찾는 것이 필요. 어느 곳이든, 가족과 사회망을 다시 구축하거나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적절한 민간 주거 임대료에 충분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원조.

7. 거리노숙인을 위한 포괄적 정책이 가능한가?

▶거리노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중심적인 정책이 필요. 모든 정부 및 NGO의 기여가 필요. 사회, 의료, 고용, 주거 등의 모든 영역에서의 기본적 전략이 필요. 지방정부는 모든 관련조직에 의한 우선적 관심에 대한 확인과 모든 노력을 조정할 수 있는 포럼이 되어야 한다.

▶주거와 노동 정책 : 주거는 중요한 이슈. 정부는 공공 주택을 확충하고 노숙인에게 우선권을 제공. 민간주택 시장에서의 개입(임대료 조절)은 어려움. 적절한 공간의 비용과 공급에 대한 통제의 효과에 대하여 의심. 또한 홍콩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불가능함.

캘리포니아의 노숙인¹⁾

- 조직화와 옹호의 이슈 -

도입

- 729명을 10개의 대도시지역의 도심과 변두리에서 인터뷰함.
- 인터뷰는 30개의 서비스 조직에서 실시함.
- 조사의 목적은 정부의 정책이 한 것은 무엇이고, 노숙인들이 어떻게 조직활동에 참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임

1) Lee, W.(1992), Homeless People in California : Issues for Organizing and Advocacy, Los Angeles Homelessness Project, Working Paper46

1. 노숙인들이 경험하는 문제

- 약 30%가 음식의 부족을 호소함(98%는 양, 2%는 질)
- 22%가 범죄와 폭력문제를 호소함(동료 노숙인 혹은 비노숙인)
- 21%가 쉼터와 주거문제를 호소함

2. 투쟁을 위한 주요한 관심

- 47%가 고용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68%는 즉각적인 직업을, 32%는 준비를 원함)
- 37%가 싸고 접근가능한 주거를 원함.
- 25%가 보다 나은 쉼터의 서비스를 원함
(쉼터의 다양한 형태를 원함-파트타임직, 밤시간직 등을 위한)
- 15%가 복지서비스에 관심을 보임(복지서비스가 수준이 낮고, 접근이 어렵기 때문)

3. 노숙인을 동기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p57에 나와있음)

4. 정부정책이 그들을 돕는지 혹은 해치는지?(p58의 표)

- 55%는 해가된다고 함
- 31%가 득이된다고 함

노숙인개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¹⁾

- 정책과 기획에 대한 함의 -

1. 도입

노숙인 집단의 정신병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향상된 서비스 모델이 요구된다. 많은 조사자들이 ct가 원한다고 말하는 서비스 유형에 대해 보고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서비스의 활용과 어떻게 잘 관련을 맺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많은 시범프로그램들의 평가 보고서들은 반복을 할 수 있거나, 정책을 만들어 적용할 만큼 충분히 서비스 활동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하고 있지는 않다.

과정평가를 통해 서비스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서비스 사용의 유형과 양의 예측치(predictors)에 관한 물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정보는 표적 수혜집단의 사람들이나 전달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복을 계획

1) Carol T. Mowbray, Deborah Bybee(1996), Services Provided by a Homeless Intervention : Policy and Planning Implication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3(4)

하는데 유용하다. 집단내 그리고 지역에 따른 노숙인들의 이질성 때문에 서비스 사용에 대한 예측치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른 집단과 달리 노숙인집단의 서비스 예측에 대한 정보는 "개인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거절한다"는 잦은 주장 때문에 보다 필요하다. 최소한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ct 수준의 예측치를 조사하고자 하는 서비스 계획자와 전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개입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 소논문은 노숙인과 정신질환자이면서 두 지역에서, 그리고 연방에서 기금을 받고 서비스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양과 기간에 관한 정보를 보고한다. 다른 보고서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결과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분석은 서비스 사용과 ct관련성, 그리고 세팅의 특징과 관련하여 서비스 사용의 예측치가 제시된다. 이 결과는 노숙인 개입을 위한 서비스 표준에 관한 정책발전에 기여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말하자면 서비스 패턴이 ct와 세팅의 특징을 어떻게 그들이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의해 정책입안자들이 적절한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1) 배경

가.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description)

정신건강 연계 개입모델은 Factorytown과 Colleetown에서 시행되었다. 위 커들은 정신병있는 노숙인 혹은 잠재적 노숙인에게 outreach를 제공함. 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주택확보를 위한 지원, 소득지원, 훈련과 재활, 정신의료, 단기간의 사례관리 등)를 제공함. 이러한 서비스는 의뢰를 포함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주거에 대한 욕구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자

원은 독립적인 주거에 접근하여 머무르는 것, 주거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집주인에 대해 개입하는데 활용하는 것들임.

나. 프로그램의 결과

자격기준이 되는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키는 것의 성공률 - 73%

참여자의 87%가 12개월 이상 지역사회에 영구적인 거주지를 마련함

참여자의 87%가 공동체의 영구적인 주거를 마련하고, 12개월 추후조사에서 정적인 거주결과를 보여주었다.

(2) 방법

가. 장소

Factory-town : 공업도시, 접근가능한 주택이 많으나 범죄지역과 가까움

College-town : 중산층 대학도시, 접근가능한 주택이 별로 없음

나. 표본

3가지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발함. homeless 쉼터, 공공 정신병원 환자,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사례에서 선발함.

일단 선발되면 자격심사를 한다. 자격은 homeless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적당한 거주지 없이 입원한 사람들이다.

기간 : 89년 10월 1일부터 90년 12월 31일 까지

장소 : 163명 중 60.7%는 factory-town, 39.3%는 college-town에서 선발.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36.2%, CHM 사례에서 38.7%, 쉼터에서 25.2% 선발함

다. 자료의 수집

매일 직원들이 적어내는 자기보고서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함. 더불어 out-reach 워커, 조사보조자, 면접자, 지역사회 정신의료 기관의 검토보고서 등으로부터 분석을 하였다.

(3) 결과

가. 직원들에 의해 제공받은 서비스의 양과 유형 --Table 1

나. 받은 서비스의 군

4가지 변수(거주지에서 받은 직접 서비스의 시간, 사례관리, 정신건강 개입, 기술 확보)의 점수로 4개의 군이 제시됨.

정신건강 강조군, 사례관리 강조군, 주거 강조군, 서비스 결핍군 등이다.

다. 서비스 군 membership의 공변량(covariates) --Table 2

미국의 노숙문제: 상황, 유형, 개입¹⁾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노숙인의 관점에서 노숙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숙의 유형적 분류로 실천적 개입과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미네아폴리스와 미네소타에 있는 2개의 일시보호소(drop-in center)에서 36 명의 노숙인이다.

조사방법은 심층적인 개방형의 구조화된 면접으로 9개월간의 참여관찰을 하였다.

1) Edwina L. Hertzberg(1992), The homeless in the United States: condition, typology, and interventions,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 35, 149-61

노숙인이 말하는 노숙의 원인은 실직, 직장폐업, 가족관계해체, 기술부족, 약물 및 알콜중독, 가족폭력, 정신질환, 주거폐쇄, 장기적 빈곤, 저렴한 주택부족 등이다.

노숙원인의 공통분모는 빈곤이다. 노숙인이 말하는 노숙이란 그 자체로 여러 위협과 위기를 내포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된 원인이 경제적 문제라 해도 경제적 보상만으로 노숙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노숙이 장기화되면서 노숙의 하강적 이동에 의해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차 회복이 힘들어지고 더욱 보호받아야 할 사회소외층으로 발전한다. 이를 노숙의 하강나선으로 설명하였다.

노숙인 유형은 저항자, 동요자, 순응자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노숙문제의 주요 이슈는 고용, 주거확보, 적정한 임금, 사회서비스이다. 이의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옹호자, 정책개발자, 교육자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하다.

1. 노숙의 하강나선

흔히 노숙인이 될 때는 개인의 비극적 사건이 수반된다.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낙담과 절망하게 된다. 매일의 생활은 잠자리와 음식을 얻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일시적이겠지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비생산적인 일상생활이 반복된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수치심과 죄책감이 자리잡게 된다. 직업은 자존감과 직결되고, 실직은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느끼게 하고 사회 밖으로 내몰리는 느낌을 준다. 수치심으로 노숙인들은 자신의 한 줌의 지지체계라도 호소할 것을 꺼리게 된다. 그래서 소외는 더욱 깊어진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내부로 향하게 되면 흔히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기존의 사회생활 밖으로 탈선하게 되면 노숙이 장기화된다.

음주에 대한 유혹이 매우 강력하게 느껴진다. 좌절과 거부감을 이기기 위해 음주는 하루의 일과가 된다.

노숙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신질환은 이러한 상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알콜중독은 노숙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자존심과 자긍심에 미치는 하강나선의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노숙유형

(1) 저항자

상당히 안정된 고용경험을 가졌고, 노숙에서 벗어나고자 함.

초기개입은 희망이나 열정을 이끌어내고, 우울증이라는 하강나선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필요함.

【표 1】 노숙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

특성	저항자	동요자	순응자
노숙기간	짧다(22년)	길다(4.4년)	장기화(12.7년)
상황에 대한 태도	거부적	양가감정	수용
노숙장소	내부	대체로 외부	외부
노숙원인	자기결정 아님	자기결정 아님	일부는 자기결정
교육에의 열망	대체로 원함	일부만이 원함	거의 원하지 않음
문자해독능력	전국평균	거의 가능	절반정도 가능
가족역기능의 심각화	일부	대부분	대체로
어린시절에 대한 긍정적 관점	대부분	대체로	거의 그렇지 않음
자신만의 공간확보열망	대부분	일부	소수
미래에 대한 현실적 소망	대체로	소수	없음

고용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주거가 빨리 안정되어야 함
관심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하고 적절한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2) 동요자

정신질환, 알콜중독, 가족기능 악화 등이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는 중요한 개
인적 장애요인임.
이들의 욕구충족에 장애가 되는 상황을 처리하는 치료적인 적절한 서비스가
요구됨.
주거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장기적 고용대책의 마련 고려하기 힘들.

(3) 순응자

혹독한 환경에도 보호소보다 거리노숙을 택함.
직업이 없고 사회 구성원이 될 생각도 없음. 노숙상황에 자신을 순응시키고
있고, 대부분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함.
응급구조소나 일시보호소가 필요하다. 아웃리치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등이 그
들이 원할 때 제공될 필요가 있음.
그들이 사회를 포기해도 사회가 그들을 포기하면 안됨.

3. 실천적 과제

노숙기간이 길수록 노숙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며, 사회의 본류로 되돌아오게
하기 가 더 힘들다. 따라서 초기개입을 통해 시간과 자원이 절약될 수 있다.

따라서 노숙인이 안정할 수 있을 때까지 주거와 지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응급보호소와 일시보호소가 증가되어야 한다.

저렴한 주택공급,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산책정이 요구된다.

주거보호와 직업훈련 병행, 최저임금과 저소득층 건강보호체계 마련, 만성 정
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 확충, 적절한 치료시설 마련 등에 대
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적 보호서비스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숙문제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¹⁾

개요

노숙인은 이제 광범위한 사회정책, 경제변화, 서비스체계결함, 사회지지의 붕괴, 그리고 개인 및 가족의 자원접근성과 대처스타일의 차이등을 포함한 복합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노숙인에 대한 생태학적 특성을 먼저 제시하고 노숙인의 서로다른 측면들을 설명하는 생태학적 원칙 4가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한다.

1) Toro, P. A, Trickett, E. J., Wall, D. D., & Salem, D. A.(1991), Homelessness in the United States: an ecologic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6(11), 1208-1218

생태학적 관점의 특성에는 (가) 개인행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맥락을 기술하는 데 대한 강조, (나) 생태학적 환경이 서로 다른 분석수준에서 개념화될 수 있음에 대한 주장, (다) 동일한 유형의 환경일지라도 서로에게 매우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라) 개별행위가 상호교류적이며 환경을 참고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개념, 그리고 (마) 개입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생태환경에 맞게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믿음 등이 포함된다.

1. 생태학적 유추: 통합적 heuristic

생태학적 관점에서 연구나 개입수행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mind-set(사고방식)하에서 이뤄진다.

가. 노숙과 같은 이슈들이 다양한 생태조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울러 이러한 조건들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taking the time)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나. 생태학적 관점의 두 번째 보편적인 mind-set은 연구나 개입이 이루어지는 대상인물이나 기관과의 관계를 더욱 고취하기 위한 commitment를 포함한다는 것

2. 4가지 생태학적 원칙들(Kelly의, 197-80년대)

(1) 적응원칙

: 사회맥락과 개인이 그것과 갖는 관계에 대한 사정(assessment)에 중점을 둔다

- ▶ 생태학적 환경이란, 문제규정 및 해결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규범, 서비스 관련정책들, 지지적 사회구조의 유용성, 주변사람들의 태도, 광범위한 경제동향, 문화적 신념 등을 포함한다
- ▶ 개인적 관점에서 보자면, 적응을 위해 요청되는 사항들과 사회맥락에 의해 형성된 각종 기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슈에 중점을 둔다
- ▶ 대처란, 개인이 처한 상황을 다루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방법을 포함하며, 이는 사회맥락안에 존재하는 요구, 기회, 위협, 그리고 기대 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그 기반을 둔다

노숙인문제와 관련하여 적응원칙은 다음의 몇 가지 서로 다른 주요인들에 집중된다.

가. 사회 문화적 영향

적응원칙에서 보면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이 노숙인문제의 정도(extent)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인종에서 노숙인 문제발생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도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은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혹은 이태리 등에 비해 노숙인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된다.

사회 문화적 영향요인들은 노숙인들이 경험하는 각종 경험들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이나 서비스방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대중여론 또한 노숙인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기에 합당한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함으로써 노숙인들의 생활에 문화적으로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또하나의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나. 지역적 영향

노숙인에 대한 구조적인 관점에 주목하는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사회 문화적 요인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숙인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 역시 중요하다.

▶ 노숙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역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규정(norms), 태도, 관심들이 프로그램개발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적응원칙에서는 노숙인들이 기능하고 있는 지역사회맥락에도 주목한다. 노숙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기초로 적절한 프로그램기준을 세워 효과성평가를 제대로 하자면 지역사회환경조사(local environmental assessment)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 인간-환경 조화과 적소(person-environment fit and niches)

▶ “어떠한 특정 정책, 서비스, 자원, 환경도 모든 노숙인들에 부합될 수는 없다.”

▶ 개인의 편에서 보자면, [인간-환경간 조화]는 서로 다른 노숙인 집단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차별화가 중요하다.

▶ 개입과 관련하여 두 가지 보완적 접근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첫째, 연속적인 서비스대안을 개발하여 사람들이 개인별 욕구의 차이에 따라 선택대안을 창조하는 것, 둘째는 프로그램의 상대적 efficacy를 추적하는 방법이다.

적응원칙은 사회적 맥락, 행위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수준의 환경, 그리고 문화와 context bound처럼 개별행위를 이해하는 가치 등의 속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2) 자원주기의 원칙(Cycling of resources Principle)

적응의 원칙이 노숙인문제를 바라보는 광범위한 맥락에서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자원주기의 원칙은 이와는 다소 다른 차원에 초점을 둔다. 즉, 사회체계내에 존재하는 자원들이 어떻게 규정되며, 구별되고, 조장되는가 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노숙인문제에 대한 자원관점을 채택함으로써 개발 및 구축여지가 있는 개인적 혹은 지역 사회적 강점(strengths)을 찾는 데 주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지역사회내의 자원들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증진된다.

▶ 자원에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목표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자원뿐 아니라 무형의 자원이 속한다.

가. 자원사정 (개인차원 및 맥락차원)

개인차원에서, 노숙인이 다양한 맥락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노숙인의 생활은 지지적인 관계를 창조해내고 각종의 체계들과 협상하는 기술을 배워낸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노숙인들은 생존을 위해 단기에 광범위한 자원을 짜집기하는 데 매우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자원에 덧붙여, 노숙인을 둘러싼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련의 network resources도 있다.

공식적인 서비스망(접근성이 떨어지면 망!)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지지망도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나. 자원창출

자원주기의 원칙에서는 유용한 자원범위가 확대, 팽창되는 방식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자원주기의 원칙은 노숙인이 가진 강점, 다양한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유형, 습터를 제공하거나 지지를 하는 공식/비공식적 세팅의 유형 등에 관심을 둔다.

(3) 상호의존의 원칙

상호의존원칙은 말 그대로 어떤 시스템도 일련의 상호의존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정적인 시점에서는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변화시점에서는(개인이나 맥락 내에 불균형이 있을 때) 상호의존성원칙은 한편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체계내 다른 측면으로 뻗어 가는지에 초점을 둔다.

개인이나 가족이 노숙인이 된다는 것은 생활반경에서의 다양한 파장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족역할에 대한 재규정, 자아개념이나 사회관계망에서의 잠재적 변화, 그리고 건강문제에 대한 증가된 위험 등등..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노숙인을 위해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한다는 것은 기존서비스기관을 통해 이미 제공되어오던 서비스들의 지속적인 패턴에도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노숙인을 위한 사회정책들이 결국은 지역사회를 통해 여과되고 중재되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질 수 있다(발제자의 한마디 : 우리나라도 서울시에서 정책안이 나오면 실제로 각 자치구별로 이를 해석하고 시행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맥락).

체계내 어느 한 측면에서의 변화는 다른 측면들과의 관계도 바꾸기 때문에 이는 다양한 결과를 파생시킬 수 있고 이중 애초 기대한대로 발생하는 결과는 부분일 뿐이다. 따라서 연구자나 개입자, 정책입안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파생 가능한 긍정적/부정적 결과들을 충분히 깊게 관심 가져야 한다.

(4) 연속성의 원칙

연속성의 원칙에서는 체계들이 끊임없이 흐르는 상태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생태체계의 시간이라는 범주에 중점을 둔다. 연속성의 원칙에서는 사회현상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데에 역사적, 맥락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해는 정책적 대안들을 결정하기 위한 맥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대안적 행동전략이 가진 가능한 장, 단기적 함의를 고려하는 게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속성원칙의 3가지 분석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숙인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변화가 맡았던 역할.

둘째, 서비스와 서비스전달체계. 미국내 노숙인문제는 기존 서비스맥락내에서 발전된 것임을 회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존 사회문제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에 반응했으며, 불운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깨달은 교훈

노숙만성화에 대한 예측변인¹⁾

개요

인간자원의 결여, 사회적 소외, 정신병리, 스트레스적 생활사예의 직면, 이 네가지는 만성적 노숙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결과로 제시되었다. 본고는 네 가지 이론의 각각의 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등식으로 노숙의 기간을 예측했다. 그러나 만성노숙의 전체 변량 중 소수의 비율만이 개별적 수준의 변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었다. 사회적 수준의 변수가 만성노숙의 강력한 predictors라면 연구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1) Robert J. Calsyn & Gary A. Morse(1991), Predicting Chronic Homelessness, *Urban Affairs Quarterly*, 27(1), September, pp.155-164

1. 이론적 구성

인간자원의 결핍/ 사회적 소외/ 정신병리/ 스트레스적인 생활사

2. 연구대상 : 세인트루이스지역의 대규모 응급쉼터에 있는 남성 165명

3. 변수

- (1) 종속변수 : 처음 노숙한 이래 경과된 시간의 길이
- (2) 인간자원 변수 : 교육/ 현 실업기간/ 가장 길었던 취업기간/ 인종
- (3) 사회적 소외 : 결혼상태/ 거주지이전/ 불우한 어린 시절/ 사회적 지지
- (4) 정신병리 : 정신병원입원경험/ 현 정신병리상태/ 알콜중독/ 생활만족도
- (5) 기타 : 스트레스적 생활사/ 나이/ 노숙기간

4. 결과

- (1) 종속변수와의 의미 있는 변수
- (2) 인간자원
 - 교육/ 현 실업기간
 - 유색인종남성은 백인남성보다 노숙이 만성화하지는 않음
- (3) 사회소외 : 불우한 어린 시절(강한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상대적으로 약한 베타값)
- (4) 정신병리
 - 정신병원입원경험/ 현재 정신병리
(beta coefficient가 강하지 않음. 왜냐하면 정신병원경험과 공유된 변량때문)
 - 정신병리는 만성노숙에 기여한다. 심각한 알콜문제는 만성노숙을 예지하지 않음.

노숙인들의 결연, 성, 그리고 부모라는 지위¹⁾

개요

Morris는 결연 및 결연의 상실과 관련영향을 사정하기 위해 230명의 성인노숙인(딸린 자녀가 있는 여성, 그렇지 않은 여성 및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딸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 가족접촉(family contacts)이 더 잦았으며 자존감 수준이 더 높았다.

1) Joan M. Morris(1998), Affiliation, gender, and parental status among homeless pers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2)

노숙인에 대한 최근 연구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거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심지어 적정 해결책에 대한 동의도 얻어내지 못했다. 구조적 원인(예-임가주택의 부족)과 개인문제(예-알코올 및 약물남용) 등이 규명되었지만, 그것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서도 일치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노숙인문제가 가진 복잡성과 그것이 완강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는 약물의존이나 정신질환같은 개인문제 뿐 아니라 주거 및 서비스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역시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를 하고 있다.

다양한 노숙인집단을 독특한 욕구범위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규명하는 몇몇 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 Morris는 사회결연 수준(levels of social affiliation)과 관련된 사회 심리적 결과들에 대해 유자녀 여성노숙인, 무자녀 여성노숙인, 무자녀 남성노숙인을 비교했다. 특히 성차(gender effect)가 얼마나 많이 비스듬한 상황에서 여성, 남성에게 대해 노숙영향을 감소시켜주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1. 개인문제와 결연 관계 해체 (disaffiliation)

몇몇 개인적 문제들은 사회의 주류에서 뒤쳐지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한 혼란과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사회응집력이 붕괴될 수도 있다. 결연관계해체(disaffiliation, 전통적인 사회제도를 구성하는 역할들로부터 더욱 분리되는 현상을 말함)는 노숙인에 대한 아주 최근 연구들로부터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한 연구물들이 지적하듯, 개인들을 사회관계망으로부터 몰아내는 사건들은 종종 노숙이라는 특정경험(specific episodes of homelessness)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예외 없이, 노숙인은 숙식이상의 것을 잃어버린다. 그들은 일련의 사회경제적 자원들을 잃어버린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특히 배우자학대의 위험에 처한다. 미국내 많은 여성노숙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배우자의 학대를 보고한 바 있다.

학대관계를 떠난다는 것은 여성들이 노숙인이 되는 주원인들 중 한가지이다. 이러한 학대는 타인들에 대한 불신 및 사회적 고립을 낳게 된다.

다양한 다른 요인들로 인해 개인의 여러 결연 관계가 해체되고 이는 개인이 가진 지위들을 상실케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은 계속해서 사회적 고립에 빠지게 된다. 일과 집을 잃는다는 것은 타인과의 연대를 절단하고 사회적응행위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키는 사건들이다. 관습을 좇지 않는 행동은 더 큰 고립을 낳고 노숙에 매몰될 가능성을 더 증가시킨다. 이러한 predicament(상태, 곤경)는 피하기 어려운 downward spiral을 만들고 사회연대가 더더욱 제한되면서 개인의 정신건강은 위협받게 된다. 결연은 심리적 안녕에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결연의 부재는 스트레스관련 질환, 알코올중독, 그리고 정신이상과 연관되어왔다. 결연관계해체는 오랫동안 노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잦은 정신질환을 낳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2. 결연과 성역할 (Affiliation and gender roles)

남성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다 결연적인(affiliative) 여성들은 “자신들의 여가 시간을 남을 돕는데 더 많이 할애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연을 보다 가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시간을 더 많이 갖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더 높은 결연정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는데, 예를 들어, 사회연대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빈곤여성이 고립되는 것을 도와 “social margin(사회의 최저한계)”를 제공해줄 수 있다. Stack(1974)이 언급한 바 있듯, 빈곤여성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가족 및 비가족연대 모두에 의지하며, 지지관계망은 그러한 여성들이 일하고, 자녀양육을 위탁할 타아소를 찾고, 제한적인 수입이나 관리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지지관계망이 취약한 빈곤 여성들은 불운한 상황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보호망(social

cushion)이 취약함으로 인해 노숙인이 될 위험에 더 많이 처하게 된다. 많은 경우, 남성노숙인에서도 그렇듯, 여성노숙인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오랜 원조를 받은 뒤에 자신들의 supports를 소모하게 된다. 사회연대는 대부분의 극빈 자들에 대해 이미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긴장 하에서 쇠퇴한다.

3. 통제소, 자존감, 그리고 결연 (Locus of Control, Self-esteem, and Affiliation)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사회 내에는 개인의(종종 물질적) 성공을 강조하는 풍토로 야기되는 심리적 비용이 있다. 개인들은 문화적 렌즈를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 축적된 물질적 부유와 개인성취가 인정될만한 수준인가 등으로 자기가치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느끼게 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lots)을 감수해야 하는 시간을 보다 많이 보내게 된다. 한편에서는, 개인주의와 경쟁의 규정들(norms)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자기비난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dire straits(비참한 곤경)에 처해있음을 발견한 개인들은 세상을 불운과 과멸로 가득찬 곳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매일 장애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이 외부사건들(외적통제소)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관련된 이슈는 개인의 자존감 수준이다. 저자는 본 연구를 위해 면접한 모든 집단의 노숙인들이 개인의 성취를 중요시하는 미국사회 내에서 낮은 자존감 수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노숙생활의 서로 다른 사회심리적 영향이 여성과 남성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화는 정서적 욕구(emotional needs)를 충족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며 결연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저자는 여성노숙인이 남성노숙인에 비해 결연을 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며 결연관계에 보다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의 사회화는 재정지원 및 보호를 위해 남성에게 의존하게 유도할 수 있고 이는 특히 딸린 자녀가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저자는 만일 그들이 의존적이게 된다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지위불일치(status inconsistency)를 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회는 남성들로 하여금 강할 것을 요구하며 안정적인 제공자의 역할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제공자역할에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남성들은 보다 많은 자기비난과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할 것으로 기대된다(자기책임이라 여기는 것은 보다 외적 통제소를 낳는다). 또한 낮은 자존감은 낮은 결연수준을 낳고 멈추기 어려운 소용돌이나락(downward cycle)을 낳게 된다. 사회,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는 자신과 자녀를 부양하는 데 대해 남성들에 비해 책임을 덜 느낀다. 그래서, 여성노숙인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기비난을 덜 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여성은 보다 외적 통제소를 가진다). 게다가, 저자는 여성들의 경우 낮은 자기비난수준과 높은 사회접촉으로부터 혜택을 입기 때문에 보다 두터운 사회관계망을 가진 여성일수록 보다 높은 자존감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된다.

4. 가설

가설들은 성과 부모지위에 의해 기대되는 통제소와 자존감의 차이에 기반한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보다 결연적으로 사회화된다. 그리고 자신이나 딸린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은 여성노숙인들에 대한 사회접촉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 자녀부양은 이미 무언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부모(dependent parent)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가설1>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보다 높은 결연률을 가진다. 그리고 딸린

자녀가 있는 여성노숙인은 가장 높은 수준의 결연관계를 가진다. 상이한 유년기 사회화의 또 다른 결과는 남성에 대해서보다 여성에 대해 의존을 사회적으로 더 수용해준다는 데 있다. 노숙인들은 정의에 의하면 의존상태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다. 성에 의한 차이는, 만일 상이한 사회화가정과 일관된다면, 여성노숙인들이 보다 외적 통제소를 가지며 남성노숙인들이 보다 내적(자기비난) 통제소를 가질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더구나,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것은 그러한 경향을 가중시키게 되며 따라서 딸린 자녀가 있는 여성노숙인은 가장 외적 통제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가설 2> 여성노숙인들은 남성노숙인에 비해 보다 외적 통제소를 가진다. 그리고 딸린 자녀가 있는 여성노숙인들은 가장 외적 통제소를 가진다.

결연과 자존감간 정적 상관관계는 더 앞선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Coates, 1985). 그러므로, 여성노숙인들은 사회결연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남성노숙인들보다 보다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나타낼 것이며 딸린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러한 효과가 더할 것이라는 것이다.

<가설 3> 여성노숙인들은 남성노숙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지며 딸린 자녀가 있는 여성노숙인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진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자존감, 결연, 통제소)은 상호관련되며 상호강화적인 특성을 가진다.

5. 연구방법

(1) 대상참여자와 연구절차

자료(인구사회학적 자료, 개인력, 사회심리측정)는 1994년 2월 3주 동안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쉼터에서 230명의 성인노숙인들에 대해 개별적인 대면면

접을 하여 얻었다. 면접은 500명 규모의 남성쉼터, 200명 규모의 여성 및 가족쉼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과 시설을 기준으로 할당을 하였고 할당된 대상군은 각 장소로부터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들로 채워졌다. 65명의 여성(유자녀+무자녀)과 165명의 남성이 대상참여자다. 경력있는 훈련된 면접자들이 대략 1시간의 세션을 통해 데이터를 취합하였다.

(2) 변수와 측정

표본이 유자녀남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부모지위 변수가 세가지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무자녀여성, 유자녀여성, 무자녀남성(부부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결연은 개인적 접촉이든 일과 관련된 접촉이든 응답자들이 갖는 외부접촉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응답자들이 접촉한다고 보고한 근친의 퍼센트와 고용지위에(employment status) 기반을 두었다. 저자는 Rotter I-E Scale(Rotter, 1966, Lefcourt, 1991에서 재인용)의 약식버전을 통해 통제소를 측정하였고, Blascovich와 Tomaka(1991)로부터의 약식버전을 통해 자존감을 측정하였다. 기타 다른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연령, 인종, 교육수준, 노숙생활력, 월수입). 연령과 교육수준은 년(years) 단위로 측정하였다. 인종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유형화하였다(백인, 흑인, 기타). 노숙생활력(露宿生活力)은 빈도와 주기를 포함한다. 응답자들이 전에 노숙이었다고 보고하였을 경우 추후질문(follow-up questions)은 노숙생활 각 시기의 상황과 주기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노숙생활의 현재 및 과거 에피소드들은 전체 노숙생활일자들을 구성한다. 총 월수입(미국 달러기준)은 현금과 정부급여(현금, 현물) 둘 다 포함시켰다.

6. 연구결과

여성들이 보다 결연적 연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딸린 자녀가 있는 여성이 가장 높은 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부분적으로 가설 1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연대만을 놓고 비교할 때 자녀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었다. 무자녀여성(39.2%)과 무자녀남성(39.6%)은 그들의 가장 친밀한 친척과의 접촉수준에 해당하는 점수가 비슷하였음에 비해 유자녀여성은 65.6%가 근친과 접촉을 유지한다고 보고함으로써 차이를 보였다. 무자녀여성들은 무자녀남성들에 비해 일자리를 보다 가지려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실업상태가 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통제소간에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장 극명한 결과는 부모의 책임감이 주는 영향이었다; 세 집단 중 유자녀여성은 가장 높은 외적 통제소점수를 보였다. 점수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할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가설2는 약하게만 지지되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가설3도 약하게 지지되었다. 가정된 경향은 무자녀여성들에 비해 유자녀여성의 자존감 수준이 약간 높았다는 것으로 지지되었다. 남성들의 평균 자존감 점수는 양 여성집단의 평균점수이하 full point(최대점)이상이었다. 그러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Goodman(1991)이나 North & Smith(1993) 등에 의해 이루어진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들은, 유자녀여성노숙인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연령이 어린 경향이 있고 불균형하게 African American이었다는 것이다. 무자녀여성들의 60%가 백인인데 반해 많은 비율의 무자녀남성들은 African American이었다.

유자녀여성의 91%가 노숙생활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들은 또한 노숙생활을 한 전체 날수도 가장 낮았다. 노숙생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성적 사회화 gender-socialization"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

타났다. 남성들은 자신들 책임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일하지 않아서 혹은 술이나 약물문제 등으로)

관련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표는 <표3>에 제시되고 있다. 일을 한 생활비율(percentage of life worked), 교육수준, 그리고 자존감간의 관계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소와 근로생활비율간 부적 상관관계는 일을 한 경험이 많을수록 보다 내적 통제소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존감과 외적 통제소간 부적 상관관계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 부모지위유형의 차이에 따라 어떠한지는 흐릿하게 한다.

7. 논의

연구결과는 여성노숙인들이 남성들에 비해 결연을 보다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자녀여성노숙인은 가족과 더 많은 접촉을 가지며 무자녀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고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무자녀남성노숙인은 (가) 일과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나) 노숙생활이 가장 길고, (다) 가장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보이며, (라) 가장 내적인 통제소를 갖는다. 따라서 노숙생활의 취약주기(cycle of vulnerability)는 보다 장기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많은 차이들이 남성과 여성들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화에 기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자급(self-sufficient)과 자기지향(self-directed)으로 사회화되어, 남성들은 자기 자신의 의존성에 직면하게 될 때 자존감을 더 많이 잃게 된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연대를 유지하는 데 남성들보다 관심을 가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극심한 빈곤과 노숙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회내 양육역할(nurturing roles)을 위해 여성들을 준비시키는 동일한 경험들은 극빈여성들에게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

들로 인해 여성들은 사회적 분리와 관련된 소용돌이나락으로부터 자신들을 격리시키는 데 도움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세 개 집단 모두에서 상당수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주된 이유로 “실업”을 이야기했지만,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은 남성들이 실업상태를 주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질문에 대해 16%의 남성들이 원인으로 약물 및 알코올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여성들이 제시한 노숙의 주원인 중 두 가지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eviction)과 학대이다. 이러한 두 가지 변수에 있어 여성들의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유자녀여성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숙생활 주원인이 학대라고 말하지 않았다. 36%이상이 집에서 쫓겨난 것이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유자녀여성들이 자기 처지를 외부의 원인으로 돌리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무자녀여성들은 배우자나 가족성원에 의한 학대를 주원인으로 말하는 경향이 보다 크고 집에서 쫓겨난 것이 주원인이라고 말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이러한 무자녀여성들은 자기 처지에 대한 자기비난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보다 내적 통제소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성의 사회화를 통해, 미국남성들은 독립과 자급이 강하게 독려된다. 따라서, 그들은 명백히 타인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기가치감을 좋게 가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자기 상황에서 활동적인 참여자로서 자신을 바라보도록 사회화된 남성들은 자신이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존성을 보다 허용받는 존재로 사회화된 여성들은 노숙인이 될 때 자신을 남성들에 비해 덜 비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유자녀여성들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은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내적 통제소를 보였다.

본 데이터로부터 자존감과 결연간 인과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분간하기란 불

가능하다. 성역할 사회화는 여성들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결연수준(일터에서 든 가족과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결연수준은 여성들이 결연에 대해 보다 높은 욕구를 가지거나 타인과의 결연을 피하는 경향이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숙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되지는 않았다; 노숙인은 많은 원인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 중 극한 빈곤과 저소득자에게 적절한 주거의 부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오히려 취약성을 낳고 어떤 개인으로 하여금 노숙으로 떨어지게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주기(결연, 성, 부모지위와 관련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결연해체와 잠식: 노숙이해를 위한 모델¹⁾

노숙의 원인이 되는 퇴거, 시설에서의 퇴원, 실직, 이혼, 가정폭력등의 사건들은 집으로부터 사람을 내몰고 그들의 소속감을 파괴하고 사회적 관계의 장점들을 위협한다. 이러한 절연(disaffiliation) 상태는 노숙인들이 자기만족을 더 얻고자 새로운 사회(community)로 옮겨가면서 더 악화된다.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에 의해 절연은 개인이 욕구를 충족하거나 노숙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물질적 지원의 양과 조언 및 정보의 양을 감소시킨다. 이들은 절연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법에서 이탈하고 주류사회에서 이탈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들을 사회적 고립과 노숙이라는 폐쇄된 결과로 인도할 것이다.

관계와 사회적 유대는 정신적인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고립은 병, 알콜중독, 정신병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처럼 관계를 맺어가려는 욕구가 좌절되면 정신병을 앓게된다.

1) Grigsby, C., Baumann, D., Gregorich, S. E., & Roberts-Gray, C. (1990), Disaffiliation to Entrenchment: A Model for Understanding Homeless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46(4), 141-156.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역기능 사이의 관계는 정신적 문제가 노숙으로 보낸 시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신병 발병률은 신규노숙인보다 기존의 노숙인들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연구가 있다. 사회적 지지의 상실은 이러한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만성 노숙인에 대한 매우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 사회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상실되는 것보다는 최근에 노숙으로 떨어진(dislocated) 사람들은 그들의 스트레스에 대해 다른 노숙인들과 관계를 맺어감으로서 대처하는 경우이다.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혼자보다는 집단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대처방식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새로운 노숙인에게 열려있는 길은 이웃이나 가족과의 유대의 상실을 노숙의 고통에 직면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림 1)

다른 노숙인들과의 결연은 양날의 칼과 같다. 구성원이 되는 것에서 오는 물질적인 지원과 소속감은 정신적인 건강과 길거리 생활의 고통에서의 보호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이는 노숙 속으로 완전히 폐쇄되어버리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

보다 많은 시간동안 노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비교와 다른 노숙인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을 걸인(tramp, bum)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림 1에서 보여주는 절연과 폐쇄의 모델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정신적 기능의 수준 그리고 노숙으로 보낸 시간이 측정될 수 있다면 3가지의 집단이 나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최근에 노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노숙으로 떨어지게 했던 사건들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과 정서적 지지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의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존재하며, 더불어 어느 정도의 정

신적인 손상을 갖고있을 것이다.

둘째는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를 상실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리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이들은 최근에 노숙한 사람들보다 더 적은 결연 관계를 갖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큰 정신적인 손상을 갖고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전에 갖고있던 역기능이나 정신병이 믿을만한 관계를 다시 획득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도 사회적 고립과 노숙의 고통으로 정신적 역기능을 유도했을 것이다.

셋째는 둘째 집단과 같이 노숙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나 이들은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를 다른 노숙인들과의 결연으로 대체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각 집단들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덜 정신적 손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텍사스와 오스틴의 노숙인들을 면접 인터뷰를 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1. 연구방법

인터뷰는 1984년 여름기간동안 실행되었고 오스틴의 인구는 35만명 그리고 노숙인은 1300명으로 추정된다.

2. 심터에 머무르지 않는 노숙인에 대한 표본추출

응급쉼터에서의 샘플로부터 편의를 극복하기 위해 거리나 다리아래 그리고 공원 등에 있는 노숙인들로 샘플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응답한 사람들에게 단기 인터뷰(인구학적인 대답)는 2달러 그리고 보다 많은 정보(관계망

의 크기, 정신적인 기능, 삶의 경험)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2달러가 더 지급되었다.

표본의 90%는 남성이었고, 대부분이 백인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3세 그리고 교육연한은 11년이였다.

3. 인터뷰

인터뷰는 낮시간에 35-40분간 이루어졌다. 기능의 수준(LOF)을 평가하기 위해서 GAS 가 사용되었다. 관계망의 크기를 사정하기 위해 6개의 질문 항목이 사용되었다. ①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을 논의할 수 있다. ② 만약 필요한 경우 25달러 이상을 빌려줄 수 있다. ③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통비를 필요로 할 경우 요청할 수 있다. ⑤ 생각이나 기회에 대한 조언을 하도록 의지할 수 있다. ⑥ 때때로 그들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 뒤의 2개 항목은 현실성과 정서적인 관여에 대한 사정이다.

4. 집단 분류에 대한 해결

LOF 사정과 자기진술에 의한 노숙기간, 그리고 위의 6가지 질문에 대해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관계망의 수로 변수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outlier는 제외되고 총 166 case가 남게 되었다. 군 분석에 앞서 분류의 값들이 z점수로 변형되었다. 각 군들은 K-means algorithm으로 확인되었다.

5. 연구결과

첫째군은 최근의 노숙인으로서 상대적으로 짧은 노숙기간(6-7개월)을 기록하

고 있다. 이들은 결연 관계가 적으며 사회적 관계망에서 약 4명 정도의 이름을 낸다. LOF 점수에 있어서는 가벼운 증상이거나 기능의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여준다.

둘째군은 취약집단이다. 이들은 사회적 지지가 거의 없고, 모든 집단 중에 가장 낮은 기능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의 절반은 거리에서 1년 이상 생활하였으며 이들은 사회적 지지를 청할 사람으로 2-3명의 이름을 대며 그들의 1/4는 그들을 도울만한 사람을 단 한명도 대지 못했다. 40%정도가 기능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적 증후를 보이는 LOF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수는 전체 샘플의 1/4 정도이다.

셋째군은 outsider라고 이름 붙여지는 집단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시설과 사회적 역할에서 outsider로서 기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이 1년 이상된 노숙인들이다. 이들의 노숙기간은 16.1개월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평균기간은 12.5개월이고 이는 취약집단의 평균이 12개월과 비슷하다.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놀라운 사회적 관계망에 있다. 그 크기는 평균 13이고 이는 다른 군들이 평균적으로 3-4명 정도를 갖고 있는 부분과 많이 대비된다. 이들의 정신적인 기능은 취약집단에 비해 훨씬 좋으며 최근의 노숙인들과 비슷한 정도이다. 이들은 전체 샘플의 15% 정도였다.

넷째군은 장기노숙인들이다. 이들의 평균 노숙기간은 6년이다. 이들의 관계망은 3-4명이다. 이들의 정신적 기능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60%정도가 보통의 증상이거나 일반적인 기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LOF는 관계망 크기와 노숙시간과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이 관련이 있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노숙의 기간과 사회적 관계망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도 이와 일치하고 있다.

6. 각 유형군들의 특징

표 3은 쉼터 재정적 상태, 지원의 이용도, 개인적인 상태, 거리의 경험 등에서 각 군들을 기술하고 있다.

아웃사이더(outsider)

이들은 재정지원을 받는 쉼터에서 가장 적게 잔다.(4%) 이들의 15%는 친구나 친척들 집에서 잔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이들과 결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의 약간이 노숙인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게 한다. 이들은 직업을 얻기 쉬운 지지적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데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많이 직업배치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업은 일시적인 직업 혹은 단순노무(day labor)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meal line, food stamp 등의 지역사회 지원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이들은 전통적이지 않은 수단을 활용하거나 그들 스스로 음식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집단은 음주문제가 가장 심각하지만 가장 적게 정신적인 문제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범죄의 희생자가 되기 쉬우며, 집단의 구성원들과 함께 자원을 가장 잘 나누는 것으로 보고된다.

취약집단

이 집단은 outsider와 비교하여 직업배치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노숙인과 장기노숙인군과 비교하여 재정지원 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약물 문제가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더 많다. 특수한 삶의 경험보다는 사회적인 고립과 정신적인 역기능으로 인해 이들

이 다른 노숙인들과 분리되는 요인인 것처럼 보인다.

장기노숙인

이 집단의 3/4는 버려진 빌딩, 공원, 거리, 자동차, 옥상 등에서 자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보다 더 food stamp를 받고 구걸을 받아 들인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규직을 가짐으로 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 이들은 다른 집단 보다 자원을 나누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

최근노숙인

최근의 노숙인들은 유용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다른 집단들과 다르다.(meal line, food stamp, 직업배치 서비스)이들의 개인적인 상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그리고 이들은 노숙기간 동안 범 죄희생자가 가장 작게 된 사람들이다.

7. 논의

이 자료는 종단적이기 보다는 cross-sectional 이다. 이는 어느 한 시점에서 노숙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인들이 다른 범주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된다. 노숙 속으로 폐쇄되어 가는 것은 사회적 지지의 상실과 재결연 과정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 이들이 거리 생활을 오래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노숙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취약집단들은 이들의 건강이나 타락이 더욱 심화되어 시설화되거나 병으로 죽거나 치명적인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거리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장기노숙인처럼 변해버릴 것이다.

outsider들은 비전통적인 태도나 행동 패턴을 보인다. 예를 들면 고용에 덜 흥미를 보이고, 알코올문제를 갖기 쉬운 것 등이 그러한 것이다. 몇 년간 노숙생활을 계속하는 outsider들은 그들의 집단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장기노숙의 사회적 고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8. 함의

노숙인에 대한 이러한 모델은 노숙 탈출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유용하다. 특히 모델과 이 연구의 자료들은 outreach의 전문화 그리고 사례관리 집단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노숙인들은 유용한 서비스를 가장 적게 받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outreach 서비스를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제시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인 고립과 역기능적인 사람들에게 반응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회적 지원이 없는 최근의 노숙인들에게는 사례관리와 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활동이 서비스 전달에 중요한 요소이다.

outsider들은 유해한 지지적 체계를 철회하도록 격려되어야 하고 노숙을 벗어난 긍정적인 집단들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야 한다. outsider들을 위한 전략으로서 원래의 작은 집단이 함께 노숙의 싸이클을 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례관리와 직업 서비스와 결합된 몇 명이 한 방에 거주하는 전통적인 주거프로그램은 이러한 경우에 효과적일 것이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와 광범위한 관계망을 갖고 있는 사람

(노숙인들까지 포함하여)에 대한 행동 계획은 대단히 다르다.

shared housing은 그 허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참여자들의 자기 만족에 기여한다는 이유 때문에 1981년 50개의 프로그램에서 1987년 400개의 프로그램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집단에 근거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

더불어 빈곤하고 애착없는 성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의존적 성인을 둔 가족지원 프로그램(AFDA)이 노숙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집과 음식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집단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세팅, 소비 사례관리, 이웃과의 관계망 향상, 다른 혁신적인 수단들이 노숙인의 위험에 대한 집합적 효능감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1990년대의 연구에서 아젠다로 포함되어야 한다.

노숙문제 이해를 위한 모델1)

1. 노숙인에 대한 개념규정

노숙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통으로 받아들일만한 단일규정은 없다

영국은 1948년 National Assistance Act하에서 모든 지방정부들은 마땅한 처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법령에 근거한 책임을 진다. 이 법에서 수혜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음. "persons who are in urgent need thereof, being need arising in circumstances that w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foreseen"

개인이 노숙인으로 전락하기까지 비난받아 마땅한(blameworthy)가의 여부에 의해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 자유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숙인에 대한 협소한 규정에 따라 운

1) McNaught, A., & Bhugra, D.(1996), Models of homelessness, In D. Bhugra(Ed.), *Homelessness and Mental Health*(pp. 26-40), Cambridge University Press.

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방정부들은 단독노숙인보다는 가족노숙인들의 욕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로 인해 단독노숙인집단은 이러한 범제 하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노숙인들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기관(voluntary agencies)들은 노숙인에 대해 보다 광의의 의미규정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노숙인을 위한 자선 쉼터(charity Shelter)의 경우 노숙인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의미를 확대하였다. poor quality housing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혹은 잠깐씩 친구집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또는 버려진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지내는 사람들 또한 노숙인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상황(conditions)보다 '집(home)'에 더 강조를 둔 것이다. 그러나 규정을 어디까지로 제한할지는 불분명하다.

노숙인에 대한 consensual definition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규정도 'not deliberately roofless'에서 'all roofless and all those resident in bad housing' 간 스펙트럼 중 어딘가에 위치할 것이다. homelessness에 대한 어떤 모델을 사정할 때는 이러한 debate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Wright(1989)는 노숙인이 되는 것은 'regular and customary access to a conventional dwelling unit'의 결핍이라고 진술한다. 그는 문자 그대로의 노숙인(literally homeless: those individuals who live and sleep on the streets)과 marginally homeless(those 'who have a more or less reasonable claim to a more or less stable housing situation of more or less minimal adequacy, being closer to the "less" than the "more" on one or all criteria')간 구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노숙인을 규정하기 위해 시도하는 중 우리는 노숙인들의 생활-그들의 주거환경의 한 측면만에 집중해왔다. Bachrach(1984)는 '가장 최근의 개념규정은 함축적으로든 구체적으로든 노숙인이 존재하며 사회적 고립이나 불만족한 조건하에서 물리적 거처가 부재하는 데 대해 동의한다.

most current definitions appear to agree, either implicitly or explicitly, that for homelessness to be present, the absence of physical residence must occur under conditions of social isolation or dissatisfaction'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Lipton등(1983)도 '노숙인'이라는 표현은 誤稱이며 개인생활의 다른 측면(고용상태, 건강, 사회적 연대 등)을 度外視한 슬로건일 뿐이라며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이 노숙인들 생활의 일부임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그 표현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 다.

만일 누군가 노숙인에 대해 개념규정하기를 원한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 질문은 '어떤 사람이 노숙인이 되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roofless였는가(집이 없었는가)?'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숙소없이 하루를 지냈다면 그도 노숙인인가? 아니라면, 그는 어느 시점에서 노숙인이 되는가? 일주일 또는 한달정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one definition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부분적으로 이는 상이한 표현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의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일치와 어려움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방해가 된다. 한가지 합의된 의미규정없이 서로 다른 연구물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종종 비교적 접근가능한 노숙인 집단들(예를 들어 무료숙소 이용자들)이 "노숙인"으로 규정되며 그들의 특성이 다른 노숙인집단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반화되곤 한다. 따라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연구나 논의를 할 때 대상자범위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가 그리고 연구에서 사용된 규정에 의해 또 어떤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연구결과를 적용하기 어려운 다른 노숙인집단에 게까지 그것을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 노숙인 유형화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노숙인들의 다양성내에는 특성이나 욕구를 서로 공유하는 노숙인 하위집단이 존재한다. 따라서 노숙인집단 전체에 대한 단일한 개념정의는 어렵지만 이러한 하위집단에 대한 규명을 해보는 것은 그러한 하위집단이 어떻게 노숙인이 되며 어떤 원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의를 주게 된다. 노숙인 유형화는 원인론(어떻게 해서 노숙인이 되는가), 현재 장애정도, 혹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등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질 수 있다.

○Leach(1979) : '내생/외생'개념으로 二分

- 내생적 노숙인 : 자신의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노숙인
- 외생적 노숙인 : 상황요인(실직, 빈곤 등)에 의한 노숙인

○Morse외(1991)

- 현재의 정신·신체장애에 초점을 둔 시스템 제안
(그러한 장애가 노숙의 원래 원인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 높은 서비스욕구를 가진 집단을 규명하는 데 우월하다고 봄

○Cohen(1994)

- 상태(state)보다는 특징(trait)으로서의 노숙인특성은 경제적 자원뿐 아니라 사회정의와 공공개념간 긴장을 반영한다고 봄

○UK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Working Party Report on Homelessness and Mental Illness(Bhugra, 1991) : 3가지 유형

- 단독노숙인(single homeless) : 25세이상 단독남/여성으로 구성

- 젊은 단독노숙인(young single homeless)
- 노숙가족(homeless families)

○Wright(1989)

- 노숙인하위집단은 매우 상이하며 그들의 사회적 배경특성(social origins, background characteristics)과 욕구에 의해 구분
- 이에 따라 그림 3.1의 도식 제안
- 노숙인에 대해 수혜가치가 있고 없고를 나누는 개념에 도전
- 다음과 같이 노숙인 구분
 - 노숙가족
 - 고립노숙인(lone homeless) : 다시 남성, 아동, 여성으로 구분
 - 장애, 인종, 교육, 지역, 범죄성, 극빈과 같이 특수요인을 지닌 노숙인

3. 노숙인 정신질환문제

○조사결과

- Wright(1989) : ADM장애²⁾가 10-55%로 다양하게 나타남
- Weller외(1989) : 크리스마스셔터를 이용한 단독노숙인집단 중 41%가 精神病歷을 가졌고, 72%는 면접조사당시 정신병증세를 보였다.

○그래서,

- 중독문제를 가진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특화된 거처(specialized housing)와 사회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한다.

2) alcoholism, drug abuse, mental illness(알콜중독, 약물남용, 정신질환)

○노숙인 약물남용(알코올남용 포함)에 대한 견해

- Winkleby & White(1992) : 관찰결과 약물남용은 노숙인의 결과인 듯.
- Wright(1989) : 뉴욕시 노숙인대상 연구에 따르면 남성노숙인들의 알코올 남용은 1968-72년 49%에서 1981-84년 28%로 감소. 이를 통해 노숙인에 있어 알코올남용이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 외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중요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노숙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알코올남용의 역할이나 알코올중독에 대한 개념규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Wright(1989)는 대략 이를 40%정도로 잡고 있다.

○알콜중독문제를 보이는 노숙인의 일반적 특성

- 결혼생활에 문제가 보다 많은 전력이 있는 남성, 백인, 나이든 층.
- 아울러, 사회적 고립, 떠돌이 일용노동, 보다 장기적 실업 등의 특징 보임

4. 노숙인에 대한 유인들(pathways)

여기서는, 한 사람이 노숙인이 되는 유인들을 규명하는 게 목적.

○Lamb & Lamb(1990)

- 무엇으로 인해 만성중증 정신질환자들이 노숙인이 되고, 노숙인으로 남게 되는가에 대해 문제제기
- 노숙으로 유인하는 요인으로는 주거부족, 서비스 제공기관내 자원문제, 약물남용과 적법한 약물사용을 오락가락하는 젊은층의 병리적 문제³⁾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정신질환(mental illness)이 노숙에 기여하는 바였다.

3) 영문 : problems of youth, co-morbidity with substance abuse and laws

○Cohen & Thompson(1992)

- homeless mentally ill과 mentally ill homeless간에는 차이가 있음
 - 탈시설화는 homeless mentally ill의 급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중증정신질환문제로서의 노숙문제는 1980년대 초반에 출현했으며 연구방법론상의 취약함으로 인해 왜곡된 면이 많다고 주장
- 보다 정교한 과학적인 연구들은 훨씬 더 낮은 비율을 보고하고 있다. 예로,

○Lamb & Lamb(1990)

- 컴퓨터이용자를 제외한 노상노숙인 53명 중 42명이 전에 정신병원이 입원했었으며, 87%는 입원시점에 명백한 정신병리를 나타냄. 2/3는 정신분열증 진단.

○Winkleby & White(1992)

- 1399명의 노숙인 중 45.6%가 정신장애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고
- 이 연구에서 손상(injuries)은 대부분 신체건강문제였음
- 노숙인이 된 시점에서 어떤 정신장애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은 노숙생활이 길어질수록 약물남용문제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탈시설화

도대체 대다수 노숙인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 노상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노숙인의 양적 증가에 대한 한가지 유력한 대답은 탈시설화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대응의 미비이다. 이는 여전히 논쟁거리.

<반론>

실제로 노숙인 중 정신질환을 보이는 비율은 많다. 그러나 이들이 이전에 정

신질환치료를 위해 의료시설을 접촉했던 수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Timms & Fry(1989)연구에서는 노숙인 중 중증정신질환을 보이는 사람은 50%이상이나 1년이상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자는 124명 중 7명밖에 없다고 조사되었다. Dayson(1993)이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방랑생활에 대해 조사한 경우에서도 실제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사례는 극소수로 나타났다. Susser의(1990)는 노숙인 중 정신질환의 팽배가 주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방법론상의 문제임을 지적(사례조사의 한계, 표집의 문제, 정신장애측정 및 해석의 문제)했다.

탈시설화가 전에 시설에 있던 만성정신질환자의 상당수를 노숙 속으로 곧바로 정착시켰다고 볼 수는 없음이 자명하다. 그러나 탈시설화는 침상이 부족, 적절한 사후관리 시설의 부재 중 조기퇴원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노숙문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이 어렵게 된 이유로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예산삭감, 1983년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 경제적 요인

: 실업, 빈곤문제, 빈곤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감소, 재개발과 슬럼가철거.

■ 개인요인

○성별 : 남성 > 여성

• 지방정부의 주택정책대상자는 같은 노숙인이라 해도 단독남성노숙인보다는 아이들이 있는 여성노숙인이 우선

• 정신분열의 경우,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더 이른 연령에 발병

-늦게 발병한다는 것은 발병전 관계망확보기회가 남성보다는 많다는 의

미일수도 있다.

-정신분열증에 걸려도 여성이 보이는 결과가 남성보다 낮다

-정신분열남성의 경우 부정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반사회적 행위와 약물 및 알콜오용정도가 높아 노숙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짐

• 분명, 여성에 비해 남성이 노숙인이 될 위험이 더 많긴 하지만, 노숙여성이 남성에 비해 중증정신병리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남

○약물오용

• Wright(1987)에 의하면, 노숙인들의 알콜남용률이 3-5배정도. 약물남용도 보편화된 문제(특히 젊은층 노숙인). 이러한 문제는 노숙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더 심각해짐.

○혼인상태

•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독신이거나 별거상태. 이렇듯 사회적 연대의 부족은 사회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노숙위험도를 증가시킴. 노숙인으로 인해 혼인상태가 변하기도 하고 망가진 혼인상태 때문에 노숙인이 되기도 하고.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무료쉼터를 이용하거나 친구집 신세를 질 가능성이 더 많음

○별거부모와 사회서비스보호

• 특히 젊은층 단독노숙인의 경우 broken homes이나 social services care로부터 나온 경우가 많음

• run away일수도 있고, throw away일수도 있고..

• 노상생활 중 매춘이나 약물/알코올남용 등 불법행위에 젖어들게 됨

○성적 오리엔테이션

• 젊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노숙인이 될 위험이 더 큼

Susser의(1991)는 정신질환자집단이 노숙인이 되는 위험요인을 7가지 제시하

여 연구⁴⁾ 그러나 노숙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요인은 '도시거주' 한가지뿐 이었음. 이에 대한 그들의 결론은 '정신질환자들의 노숙위험요인은 일반집단 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여간 요약하자면,

전체적인 노숙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요인, 거시경제적 요인을 고 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남성(성별), 40세이하(연령), 흑인(인종), 도시거주자(지역), 정신분열관련(진단), 알콜남 용, 약물남용

다양한 유형의 노숙인집단¹⁾

개 요

노숙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도시 쉼터를 이용하는 인구집단에 초점을 두어왔 다. 본 소논문에서는 일반규모의 지역사회내 중앙접수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개별노숙인 및 가족노숙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 Hagen, J. L.(1987), The heterogeneity of homelessness, *Social Casework*, 451-457

- 기존 노숙인유형화의 한계
 - 노숙인구증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포착하지 못함
 - 노숙인에 대해 협소한 이해

1. 연구방법

- 분석단위 : 노숙인 중앙접수기관에서 만난 단독, 가족, 집단노숙인
- 분석사례수 : 1984년 12월 227사례
- 자료수집 : 기관의 접수면접자료
- 자료내용 : 인적사항(연령, 성별, 인종, 노숙원인, 원하는 서비스 등)과 욕구
- 몇 가지 제한점 (표집의 문제)
 - 첫째, 세팅이 중소도시에 제한되어 전국단위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음
 - 둘째, 공식서비스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거리노숙인들은 배제되었다는 제한점 지남
- 연구의 의의
 - 중소도시 노숙인구의 특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
 - 다양한 유형에 속하는 노숙인에 대해 안내
 - 예방에서 안정화에 이르기까지(from prevention to stabilization) 다양한 개입수준에서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2. 연구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소득원 : 453 p.의 【표1】 참고
- (2) 노숙인이 된 원인 : 454 p.의 【표2】 참고
- 실업 : 42%

- 대인관계 : 34%
- 정서장애(emotional disturbance) : 15%
- 정신질환 : 13%
- 약물남용 : 15% (알콜중독 :12.4% / 약물남용 : 2.3%)
- 퇴거(Eviction) : 10% (이중 20%가 빈곤선 이상의 수입/ 수입은 주로 job을 통해 확보)
- 가출(runaway/throwaway) : 7% (여타 집단에 비해 노숙 장기경험)
- 가정폭력 : 7% (이들 중 93%가 주소지가 현지, 44% 빈곤선 이상 소득자, 36%가 job을 통해 수입확보)
- 출소자 : 6% ○ 병원퇴원환자 : 4%
- (3) 클라이언트 욕구 : 455 p.의 【표3】 참고

【표3】 노숙인의 서비스욕구

순위	노숙인욕구	백분율(%)	순위	노숙인욕구	백분율(%)
1	응급쉼터	68	9	알콜치료	11
2	영구주택	39	10	정신건강점검	11
3	사례관리	38	11	재정지원	9
4	식사해결	32	12	의료치료	7
5	취업	26	13	교육/직업훈련	4
6	적정기관의료	21	14	법률서비스	2
7	장기상담	17	15	약물치료	1
8	자활의 집 제공	14			

- 집단유형에 따라 서비스욕구에 편차보임.
 - 출소자/퇴소자, 대인관계문제경험자, 실직자 등의 경우 응급쉼터에 대한 욕구가 우세함

- 가정폭력피해자/출소자 : 재정지원욕구
- 정신질환, 정서장애 : 정신건강점검
- 출소자/퇴소자 : 법률서비스욕구
- 퇴원환자, 입원경력있는 자 : 의료치료욕구
- 실직자 유형의 서비스욕구
 - 영구주택, 사례관리, 응급쉼터에 대한 욕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보임.
 - 이 집단은 특히 서비스기관에 대한 접근성확보, 서비스조정 등을 원조할 필요
- 뿐만 아니라 단기적이면서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짐
- 정신질환자 유형의 서비스욕구
 - 사례관리서비스(62%), 장기상담(41%), 정신건강점검(41%)
 - 전체표본에 비해 위기상담(69%)과 사례관리에 대한 욕구가 큼
- 알코올남용 노숙인유형
 - 알코올치료(74%), 응급쉼터(70%), 영구주택(48%), 사례관리(44%)
- 가정폭력피해 노숙인유형
 - 장기상담(46%)욕구가 매우 강함
 - 위기상담이나 사례관리욕구는 전체집단에 비해 그 비율이 약하게 나타남
- 가출청소년 노숙인유형
 - 집중적인 장기서비스 욕구 매우 강함
 - 자활의 집 욕구 강함(43%) : 전체집단의 욕구는 12%
 - 영구주택욕구(79%) : 전체집단의 욕구는 36%
 - 사례관리서비스(79%), 장기상담(43%)

(4) 서비스패턴

- 보통의 경우 노숙생활을 경험하게 된 초기에 서비스를 기관에 요청(조사대상 63%가 첫 원조 요청시 1개월 미만 노숙한 상태)
- 가출청소년/병원퇴원자 : 기관서비스계획을 다른 유형에 비해 거부하는 편. 가출청소년들은 상당히 많은 욕구를 가지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러한 욕구를 서비스기관에 표출하게 되지만, 기관의 서비스계획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알콜남용자/퇴거자 : 서비스계획을 끝까지 꾸준히 따르지 않는 편. 알콜중독자 중 15%가 기관서비스계획을 끝까지 꾸준히 따르지 못했고, 이 비율은 전체집단의 중도탈락률과 비교할 때 2배정도.

(5) 성별, 인종, 그리고 연령 차이

- 성별
 - 여성 : 퇴거나 가정폭력으로 노숙인이 될 위험이 남성보다 훨씬 큼.
 - 남성 : 실직으로 인해 노숙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남성 51%, 여성 34%)
 - job을 통한 소득확보 성별차이 : 여성 19% > 남성 8%
(∴ 고용에 대한 욕구에도 성별차이가 남 : 여성 20% < 남성 33%)
- 인종
 - 백인 : 노숙인원인을 주로 실직, 정신병원입원경력으로 보고
 - 기타인종 : 가출청소년, 가정폭력피해, 출소를 주원인으로 보고
 - 실직으로 인한 노숙인여부는 인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백인 52% > 기타 32%)

●.....노숙인복지연구 제 1호

(∴소득원이 job인 경우 인종간 차이 : 백인 8% < 기타 21%)

○연령

- 10대 : 노숙원인은 주로 가출과 출소
- 성인초기(22-34세) : 노숙원인은 주로 대인문제, 알콜남용, 정신질환, 정서

장애

- 중년층 : 노숙원인은 주로 병원퇴원, 이전정신병원입원경력
- 노령층(65세이상) : 정신질환이 주원인

3 결론 및 함의

- 그간의 서비스는 쉼터제공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으나
- 이제부터는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만족시키는 이상으로
- 노숙인집단의 유형차이를 고려하여 서비스계획을 짜야 할 것
- 이를 위해 다중전략(multiple strategy), 광범위지역계획(community-wide planning), 사례관리가 중요